

2021년도 한해를 지켜주시고 2022년 새해를 준비 하기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코로나 팬 데믹으로 인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 하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1년 12월 25일 (토) 제 1855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1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종교뉴스협회, 2021년 10대 종교뉴스 선정 발표

올해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습격에서 종교가 수행한 중요한 역할이 종교뉴스협회(Religion News Association, RNA) 회원들이 매년 실시하는 10대 종교 기사 및 올해의 뉴스 메이커 설문 조사에서 2021년 최고의 종교 기사로 선정됐다(Religion's Role in Jan. 6 Riot Named Top Religion Story of 2021).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집권이 2위를 차지했고, 대법원의 획기적인 로 대 웨이드 낙태 판결에 대한 이의 제기가 뒤를 이었다.

RNA는 가톨릭 신자로서 케네디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낙태 합법화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2021년 종교뉴스메이커로 선정됐다. 취임 첫해에 대법원에서 보수 다수파를 확고히 하는 데 일조한 가톨릭신자인 에이미 코니 배넷 판사는 최고 뉴스메이커 2위에 올랐고 탈레반이 그 뒤를 이었다.

뉴스미디어에서 종교를 다루는 기자들을 위한 72년 된 RNA 회원들은 수십 년 동안 연례 스토리 투표에 투표해왔다.



미 교회 재정, 더디게 안정 국면 진입

라이프웨이, 목회자 대상 2021년 교회재정 설문조사 보도

대유행에서 벗어나 대부분의 교회는 재정적으로 물에 잠긴 것 같지 않지만, 많은 교회가 아직도 난항을 겪고 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올해 설문 결과에 따르면, 미국 개신교 목회자의 약 절반이 현재 경제가 교회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경제가 교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한 49%는 동 리서치가 2009년 이 문제에 대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Most Churches Find Financial Stability in 2021).

목회자 5명 중 거의 2명(37%)은 경제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고 12%는 경제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반응은 모두 2020년 9월에 비해 감소했다. 48%는 경제가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고 15%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올해 보다 적은 수의 목회자들이 경제가 교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2012년 5월이었다.

COVID-19 팬데믹이 발생하기 2년 전인 2018년과 2019년은 12년 전부터 묻고 있는 동일한 주제 즉 경제와 교회 재정에 대한 설문조사 역사에서 더 많은 목회자들이 경제가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한 유일한 두 번이다. 라이프웨이 리서치의 스코트 맥코넬(Scott McConnell) 전무는 "대부분의 교회가 대유행의 불확실성에 따라 재정적으로 가뭄 심호흡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식 경기 침체가 2020년 4월에 빠르게 끝났지만 경제 성장은 고르지 않았고 현시점에서 경제의 긍정적인 영향을 실제로 느끼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3면으로 계속)

1. 2021년 1월 6일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일어난 폭동이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제 45대 미국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미합중국 제46대 대통령 당선인 조 바이든에 대한 연방 의회의 공식 차기 연방 대통령 인준을 막기 위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의회 인증일에 미국 국회의사당을 무력 점거했다가 진압된 사건이다.

해당 폭동의 가장 큰 원인은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패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과 불복 선언이었으며, 여기에 트럼프를 메시아로 숭배하는 QAnon발 딥스테이트 음모론이 폭동을 촉발시킨 큰 불쏘시개가 됐다.

친 트럼프 시위대가 미국 국회의사당을 공격하는 동안 종교적 색채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일부는 기도를 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의사당 안팎에서 기독교 또는 이교도 상징과 슬로건을 표시했다.

2. 미군이 철수한 후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고 9.11 테러 이후 미국



이 지원하는 연합군에 의해 축출된 지 20년 만에 엄격한 이슬람 통치를 다시 시행했다. 난민들은 여성과 소수 종교인, 특히 기독교인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공군 수송기를 타고 탈출 러시가 일어나고, 아프간은 아수라장이 됐다.

3. 대법원은 낙태에 대한 권리를 설정한 획기적인 Roe 대 Wade 판결을 뒤집으려는 미시시피의 소송 제기를 시작했다. 법원은 임신 초기에 심장 활동이 감지된 후 낙태를 금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텍사스의 법

4. 수만 명의 정부 및 민간 부문 직원이 COVID-19 백신 의무화에 대한 종교적 면제를 요청했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요청을 지지하기를 거부한다.

5. 조 바이든(Joe Biden)이 두 번째 가톨릭 대통령으로 취임해 미사에 자주 참석하고 가톨릭 가치와 찬송가를 인용하지만 합법 낙태를 지지한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미국 가톨릭 주교들은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정치

제정을 거부했다.

이들에게 성찬을 보류할 것을 촉구하는 성찬식 문서를 승인했다.

6. 갤럽은 이 주제를 측정해 온 미국인의 예배당 교인 수가 80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고했다. 미국인의 약 47%만이 2018년 50%, 1999년 70%에서 2020년에 교회, 회당 또는 모스크에 속한다고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7. 팬데믹은 종교의식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다. 회중은 점점 더 대면예배로 돌아가고 있지만 출석률은 2020년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많은 교회들이 식품 저장실 확장과 같은 전염병 관련 봉사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도의 대규모 종교행사(Kumbh Mela) 순례를 COVID가 급증한 요인으로 보고 있다.

8. 캐나다 조사단은 지상 투과 레이더를 사용하여 원주민 어린이를 위한 이전 기숙학교에서 수백 개의 표시되지 않은 무덤을 발견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그러한 학교를 운영한 교회 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에 들어갔다.

(3면으로 계속)



시론 류용렬 목사



푸른초장 이기성 목사



본지가 보도한 2021년 10대 뉴스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교서적/일번서적/백트랜슬러/성구/성화/역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교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gbcc.org | 323-737-7699, 800-669-0451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2022 HAPPY NEW YEAR

은혜이슬 특별새벽부흥회

꿈은 꾸고 이룩하여 땅끝까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14-

2022. 1.3(월)~8(토)
월~금 새벽 5:30am / 토요일 새벽 6:00am / 은혜한인교회 본당

 1/3(월) 5:30am 강사: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1/4(화) 5:30am 강사: 백정우 목사 (남가주 동신교회 담임)	 1/5(수) 5:30am 강사: 이종용 목사 (코너스톤교회 담임)	 1/6(목) 5:30am 강사: 윤대혁 목사 (사랑의 빛 선교교회 담임)	 1/7(금) 5:30am 강사: 권준 목사 (시애틀 형제교회 담임)	 1/8(토) 6:00am 강사: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	---	---	--	--	---

신년 축복성회

2022. 1.20(목) ~23(주일)
목(7:30pm), 금(5:30am, 7:30pm)
토요일(6:00am, 7:30pm), 주일(1부~4부)
강사: 장순직 목사(문막드림교회담임)

장순직 목사

은혜한인교회 150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TEL : 714.446.1000 www.gracemi.com 주일예배 1부 7:30am 2부 9:20am 3부 11:30am 4부 2pm

발행인 칼럼

잊자 그리고 떠나자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성탄이 막 지났다. 올해 받은 성탄 선물은 무엇인가? 그 선물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선물이 없으셨어도 섭섭해 하지 마시라. 제가 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모든 분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한다. 무슨 물건은 아니니 수고롭게 우체통에 나가보시거나 UPS 차를 기다리지 않으셔도 된다. 선물은 다음 아닌 '선물'이라는 시(詩)이다. 다른 수고로운 없이 찬찬히 읽으시면 된다. '이주 행복 한 날/ 안개가 깔린 이른 아침 정원에서/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땅 위엔 갖가지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과거의 나쁜 일들은 모두 잊어버렸다/ 내가 누구였으며 또 누구인가 생각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몸에서는 아무런 고통도 느껴지지 않았다/ 온몸을 활짝 펴며 푸르른 바다와 돛단배를 바라보았다' 기억만이 은혜인가? 아니다. 잊자. 잊는 것도 은혜다. 잊는 것도 능력이다. 내 삶에 나쁜 것들을 잊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다. 나쁜 것뿐인가. 사실 내가 무엇인가 잘한 것도 잊음이 겸손함에 좋으니 그조차 선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선언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델타에 이어 오미크론의 기세가 등등하다. 연말인데 확진자의 그래프 곡선이 장난이 아니다. 두려움의 질은 구름이 온 땅을 다시 둘러 덮고 있다. 이 전염병과 2년 가까이 지냈는데도 희망의 빛은 정녕 없는가. 아니다. 서광(曙光)이 비치고 있다. 그 빛은 구름 저 멀리에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빛은 이미 내 안에 있다. 다만 내 안에서 숨죽이고 있을 뿐이다. 그 희망의 빛을 어떻게 드러내려는가. 아픈 2021년을 잊자. 다 뒤에 두자. 아픈 상처들에 눌러 있던 희망의 빛이 일어나도록, 연말이다. 새해까지 끌고 가지 말고 잊자. 잊자.

그런데 잊으려 해도 잊지 않는 이 노래. '♪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 그렇다.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 있다. 그저 돌고 돌며 제 자리에 있는 것이다. 떠나는 것 같고 높이 올라간 것 같으나 끝내 떠나지 못하고 다시 돌고 돌아오는 것이다. 돌고 돌지 말자. 떠나자. 떠나야 할 때인데 아직 못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타깝게도 물레방아 인생을 꾸무던 자들이 있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은 자주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떠나야 한다. 1세기 전, '편도 선교사들'(one-way missionaries)이라고 알려진 용감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선교지로 떠날 때 다시 돌아올 왕복 표표가 아닌 선교지행 편도 표표 구입하였고 자신이 죽으면 누울 관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이다. 그 관속에 단출한 개인 물품만을 챙겨 넣었다고 한다. 그들 중 밀론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다. 그는 남태평양 뉴헤브리디스 제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편도 표표를 구매 떠났다. 그는 그 섬에서 35년 동안 원주민을 사랑하며 선교하여 많은 교회와 신자를 세우고 세상을 떠났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원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큰 무덤을 만들어 그를 묻고 묘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을 새겼다. "그가 왔을 때 빛이 없었다. 그가 떠났을 때 어둠이 없었다." 얼마나 울림이 큰 떠남인가.

우리가 떠난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남아 있을까 궁금하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 아직 남아 있는 자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이 우리의 어떤 자취를 볼 수 있을까? 그들이 우리의 어떤 뉘새를 말할 수 있을까? 떠남이 없는 어떤 자취도 남길 수 없다. 그러니 떠나자. 새해를 맞이 위한 잊음과 새로운 도전을 위한 떠남의 영성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잊자 그리고 떠나자.

doomscrolling 2021년은 힘든 한 해였다!

구글, 전 세계 2021년 주요 트렌드/주제 관련 키워드 공개

구글은 지난 8일, 2021년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트렌드와 테마 리스트를 공개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하는 검색 엔진 구글은 연말마다 그해 가장 인기 있었던 질문과 주제 관련 키워드를 정리해 내놓고 있다(Year in Search 2021).

힘든 한 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 세계는 '도움스크롤링(doomscrolling)'으로 2021년의 문을 열었다. 도움스크롤링은 불행을 뜻하는 '도움(doom)'과 화면을 아래위로 움직이는 '스크롤링(scrolling)'을 합친 단어로, 암울한 뉴스를 강박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 구글은 '도움스크롤링'이 지난 1월 정점을 찍으며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검색량이 많았다고 밝혔다.

2021년은 전 세계의 많은 이들에게 모든 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국경은 폐쇄됐고 비행은 금지

보냈어야 했기 때문이다.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다. '자기 몸 긍정주의(body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했다.

'환경을 보존하는 방법'과 '지속가능성' 관련 검색은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거대도시에서 열대 섬에

르른 미국에서만 400만 명이상이 10월에 직장을 그만 뒀다.

팬데믹은 누군가에게 우 선순위를 재검토하고자 잠시 멈추거나, 더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추구하거나, 급여 요건이 더 좋은 곳을 찾는 시간이었다.

구글, NFT가 뭐야?

돈 벌기와 관련된 또 다른 관심 주제는 NFT였다. 'NFT(Non-Fungible Token)'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이미지 등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부여한 거래가능자산을 뜻한다.

NFT는 예전부터 존재하



2021년 주요 키워드로 한국드라마 '오징어 게임' 도 등장 정신건강, 기후변화, 돈, NFT, 해리 왕자부부 인터뷰 등

됐고 봉쇄 조치가 시행됐다.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관련한 최신 정보를 찾고자 온라인에 접속했는데,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표현한 '도움스크롤링'을 검색했다.

정신건강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정신건강을 유지하는 방법'과 '치유하는 방법'을 찾았다

2021년에는 전 세계에서 '정신건강'(mental health) 정보를 찾아보는 사람들이 역대급으로 많았다. 앞서 많은 사람이 외로움과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슬퍼하며 고립된 1년을

positivity)와 '지지 또는 확인(affirmation)'도 그 어느 때보다 검색량이 높았다. 이 역시 사람들이 정신건강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기후변화

세계는 2021년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몸소 느껴야 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지구의 웰빙에도 신경 쓰고 있었다.

허리케인 아이다, 대규모 산불, 가뭄 등 세계는 2021년 기후변화의 파괴적인 영향력을 몸소 느껴야 했다.

구글 데이터에 따르면 사람들은 더 친환경적이고 더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후변화 영향'을 많이 검색했다.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 중 하나인 피지가 이를 가장 많이 검색했다.

'돈'은 중요했다

세계는 '취업 방법'보다 '창업 방법'에 관심이 많았다

사람들은 팬데믹이 야기한 재정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고용 안정과 경제를 걱정하고 있었다.

특히 창업에 관한 관심이 급증했다. 2021년 세계는 '취업 방법'보다 '창업 방법'을 모색하며 새로운 창업 기회를 알아봤다. 노동부 자료에 따

긴 했다. 하지만 트위터 CEO 잭 도시(Jack Dorsey)의 첫 트윗 NFT가 290만 달러에 낙찰됐을 때 사람들의 호기심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에 대해 알기를 원했고 NFT는 제작과 관련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본 검색어에 등극했다.

왕실 셸럽

지난 3월 영국의 해리 왕자와 그의 아내 메건 마클은 왕족 역할을 내려놓은 뒤 처음으로 미국 TV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와 TV 인터뷰를 했다.

(3면으로 계속)

Advertisement for Joon Mo Myung, MD, a medical professional in Flushing, NY.

Advertisement for Bethesda Dental, a dental clinic in New York, NY.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Christian Press,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details.

Large advertisement for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 Evangelical Presbyterian Churches in America, featuring a sermon by Pastor Park Seung-il.

1위 미국 국회의사당..

(1면에서 계속)
9. 인기 있는 성경 교사인 베스 무어(Beth Moore)는 남침례교회와 그 출판사와의 제휴를 끝냈다. "SBC의 일부에 대한 성추행 사건 처리,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에 대한 자랑에도 불구하고 동 교단 회원들의 트럼프 대통령 포옹에 연대를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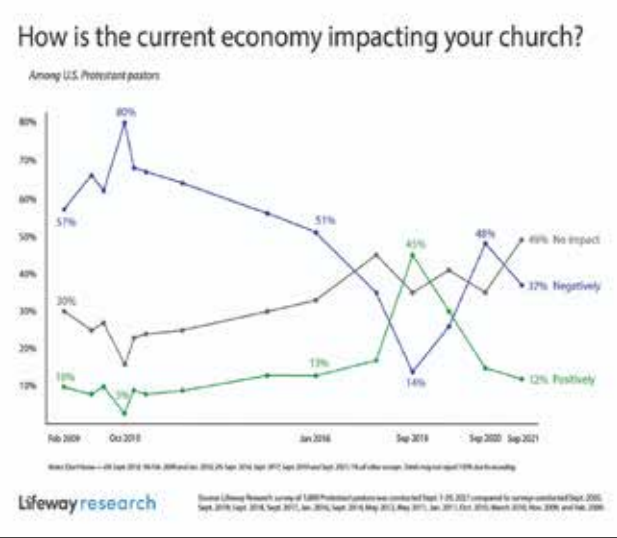
10. 사직서와 문서 유출로 혼란을 겪고 있는 남침례교회는 연례회의에서 보수적 우익을 억압한다. 인종 치유를 추구하는 총회장을 선출한다. 비판적 인종 이론을 거부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의 성적 학대 처리에 대한 조사에 시작된다.



미 교회 재정...

(1면에서 계속)
많은 교회가 2020년에 예산 부족과 현금 감소에 직면한 후 2021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예산을 충족하고 현금 감소가 멈췄다.
목회자 10명 중 7명은 현금 수준이 올해 예산을 충족했다고 말한다. 거의 절반에 달하는 교회(48%)가 교회 현금이 예산에 따라 책정됐다고 답한 반면, 22%는 예산보다 많다고 말했다. 약 4분의 1(27%)의 목회자들이 교회의 현금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과 올해로 구체적인 변화 비율을 묻는 질문에 목회자 4명 중 3명(74%)이 2020년 현금 이상이라고 답했다. 47%는 같다고 하고 9%는 1%에서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목회자들은 2020년 이후 현금이 더 감소했다고 지적한다. 3%의 경우 현금이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또 다른 11%는 10%에서 24%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14개 교회 중 약 1개(7%)의 교회가 2020년 이후로 현금이 25% 이상 감소했다고 답변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2020년 이후 현금과 기부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지만 일부 타 인종계의 다른 목회자들은 전염병의 경제적 여파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아프리카계 미국인 목회자들은 경제가 회중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들은 또한



2021년 현금이 예산보다 적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백인 목회자보다 높았다(43%에서 25%). 특히, 백인 목회자들보다 현금이 25% 이상(21%에서 6%) 줄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3.5배 더 높았다.
주류 개신교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보다 재정적으로 더 열악하다. 무주 목회자들은 복음주의 목회자들보다 2021년 현금이 예산보다 적었다고 말할 가능성이 더 크다(32-24%).
맥코넬은 "주류교회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교회는 대유행으로 인해 대면예배를 재개하는 속도가 더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대면 접촉의 감소는 이 교회의 현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류영렬 목사 (와싱턴중앙장로교회)

'마지막'이란 이름에 대하여

2021년이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잊혀 지지 않는 특별한 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코로나 상황은 온 세상의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마음껏 얼굴을 대하고 대화할 수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생의 굽어진 길을 걸을 때는 시련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평탄할 때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발견하는 만나를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나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마지막'이라는 말이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마지막이란 말은 무엇보다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알폰스 도데가 쓴 단편소설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 살았던 프란츠는 평소 공부보다는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던 소년입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갔을 때 평소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독일이 귀속된 알자스 로렌 지방의 모든 학교에서 앞으로 프랑스어가 아닌 독일어로 수업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이 프랑스어로 수업하는 마지막 수업이었고, 아벨 선생님은 칠판에 Vive La France(프랑스 만세)를 남기고 이야기는 끝납니다. 평소에 평범하게 사용했던 프랑스어가 그렇게 소중하게 보일 수 없었습니다.

팬데믹은 교회에서 예배하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을 만나 얼굴을 마주하고 차를 마시는 일 같은 일상의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도 마음껏 눈을 보면서 인사마저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파스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가볍게 허그 하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자라나는 아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새롭게 깨닫습니다.

둘째, 마지막이란 말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나의 삶에 오늘 한 날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 지를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뭘스토이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삶이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곁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는 일이 될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남들이 부러워할 성공을 성취하거나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엄청난 결과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과 정성을 드려 사람을 세우고 일에 성실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삶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삶의 소중함은 유한한 시간을 인식할 때 더욱 깊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날을 허락할 때 동녘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오늘이 지상의 마지막 날처럼 여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순간마다 그 소중함을 더욱 깊이 새기고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마지막이란 말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순간도 떠올리게 합니다. 마라톤에 임하는 사람이 고비마다 다가오는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결승점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도 다시 만날 주님을 바라보았기에 생명을 던지는 헌신이 가능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수많은 사람은 주님 앞에 서는 그 영광스런 날을 바라보며 한번 뿐인 고결한 삶을 던졌 습니다.

우리 삶에도 언젠가 땅 위에서의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한날 한날의 삶이 모여 우리의 총체적인 삶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날 우리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이 행복한 미소를 짓고 계신다면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삶을 새롭게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기대와 감격으로 차오르기를 바랍니다. 외롭게 달려있는 12월 달력을 보면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주님께 감사 드립시다. 한 해 동안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오신 여러분도 참 잘 하셨습니다. 새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풍성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doomscrolling 2021...

(2면에서 계속)
매건과 해리의 인터뷰는 '구글 트렌드 역사상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인터뷰'가 됐다.
커피는 영국 왕족과의 갈등을 언급했고 아들 아치의

피부색에 대한 이야기도 꺼냈는데 이는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90개국에서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몰아보기, 즉 '빈치 와칭(Binge-watching)'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넷플릭스에서 나온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

된 TV 프로그램이었다.
일확천금을 노리고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세계를 매료시켰고,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유럽목회자세미나 내년 6월 6-11일

팬데믹 시 10월 3-8일로 연기

유럽 목회자 세미나가 2022년 6월 6-11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개최된다. 그러나 팬데믹 상황이 나빠지면 10월 3-8일로 연기한다.
원장 한평우 목사는 "팬데믹으로 인해 2년간 세미나를 갖지 못했지만 내년

에는 우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알렸다.
현재 이탈리아의 코로나 법규는 모임에서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나오는 경우 당사자는 즉각 격리되고 나머지 사람들도 격

리돼 검사를 받아야 된다. 만약 확진자가 나오면 그는 즉시 정부에서 지정된 장소(보통 호텔)로 격리돼 진료를 받는 데 그 기간이 오래갈 수도 있기에 격리비가 많다(본인 부담). 그리고 비행기 편도 취소된다.
한평우 목사는 "감염자가 되면 개인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태리 정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코로

나 보험(약 100유로)을 만들었다"며 "그 보험을 들면 모든 것을 보험에서 처리하며, 유럽에서는 어디 서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가 있고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참석하는 분들은 미리 이태리에서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사항은 본부에서 여행사와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한다.
(기사제공: 유럽목회자세미나)

Advertisement for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s. Includes sections for Candidacy Qualification, Exam Subjects,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Exam Date and Place, Accompanying Documents, Miscellaneous Information, and 제출처 (Submission Location). The exam is held at the Evangelical Student Fellowship International Church in Chicago, IL, from May 3-4, 2022.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다시 일어서리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보면 한 번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 악인, 남녀노소... 모두 수없이 넘어집니다. 대학입시에 실패하여 재수, 삼수, 사수를 하다보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사업을 여러 번 망하

면 재기할 용기를 잃습니다. 도박, 약물, 게임 중독에 빠지면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너무 자주 넘어지다 보면 재기할 능력이 사라지고 스스로 재기할 힘과 지혜를 상실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잠24:16)고 말

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해도 의인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의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에 따라 진실히 행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라 착각하며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악인은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여

넘어졌습니다. 장인과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넘어졌습니다. 그의 모사 아히도벨과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넘어졌습니다.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죄를 범하고 넘어졌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앞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37:24). 그는 넘어졌지만 아주 앞드러지지 않았습니. 커다란 실패에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 넘어져도 자신을 넘어뜨리는 악인들을 물리치고 다시 일어섰습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로 넘어진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없는 재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일곱

번 넘어져도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울 한해 어떤 일로 넘어지셨습니까? 어떤 일로 실패하셨습니까? 무슨 일로 낙담하고 절망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가 막히십니까? 왜 아직도 주저앉아 계십니까?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 그러므로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수없이 넘어뜨려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다시 일어설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들이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세요.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납시다.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일어납시다. 믿음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앞드러지느니라' (잠24:16).

푸/른/초/장

이기성 목사
(새빛말씀교회)



요한복음 4장 13-14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물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마르지 않는 물,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물, 생명을 주는 물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과 신앙이 성숙해져 간다는 것은 이런 생수로 표현된 물의 특성을 닮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도, 흐르는 물 같은 성도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첫째로 물은 높음에서 낮은 데로 흐르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은 곳을 찾아 흐

수용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경지에 이른 사람이 큰 사람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바울이 노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한

지키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변화시켜 나갑니다. 넓이가 너그러워 그 모든 것들을 조용히 수용하기 때문입니다. 광재구 씨의 '포구기행'이라는 책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바다는 넓다.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쓰레기, 하수, 공장의 폐수, 썩은 물까지도. 동시에 바다는 창조한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어루만지며 푸른 생명으로 고동치게 한다." 성숙한 사람은 마음이 넓은 사람입니다. 모든 일들을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창조를 해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약한 사람, 날카로운 사람, 시끄러운 사람, 흔들리는 사람들 모두를 마음에 품고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부드럽게 만

남께서 바라시는 교회와 성도의 모형이 아닐까요? 원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무다량이처럼 넓은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물은 모든 것을 감싸고 흐릅니다. 물의 세 번째 특성은 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깨버리거나 들어내거나 닦으면서 흐르지 않습니다. 조용히 감싸고 흐릅니다. 어루만지면서 흐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흘러가는 흐름의 방향을 결코 바꾸지는 않습니다. 목표를 향해 나가면서 모든 것을 감싸안고 흐릅니다. 치유하면서 흐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흐릅니다.

으로써 그렇게 모나고 날카롭기만 했던 제자들을 마침내 하나님나라의 일꾼으로 복음의 전파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라 다른 사람을 멋진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모난 것은 다듬고 그 속에 있는 재능들은 발굴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성숙한 성도가 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태어나고 양육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자문에 보면 묵비사염(墨悲絲染)이란 말이 있습니다. '흰 실에 물이 들면 다시 희어지지 못함을 슬퍼한다'는 뜻입니다. 묵자는 공자가 사망한 다음해인 BC 480년경에 태어나 BC 390년경에 사망한 사람으로서 그가 생존하여 활동하던 시대는 춘추시대 말기부터 전국시대 초기로 춘추전국시대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혼란과 분열을 겪던 때였습니다. 때가 그렇다보니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마땅한 도리와 가치를 외면한 채 오직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좇아 불의로 물들어 갔습니다. 이런 사태를 바라보며 묵자가 탄식한 말이 묵비사염(墨悲絲染)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요한복음 4장 13-14절



러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숙해진다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경륜이 쌓이고 직책이 올라 갈수록 점점 더 겸손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의 높이와 길이가 점점 높아져 갈수록 정비례하면서 인격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당시 사람들이 인식하는 '크다'는 개념은 '높이'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고 윗자리를 향해 무한 질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크다'의 개념을 다른 의미로 해석하여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깊이'와 '낮아짐'의 의미를 주셨습니다. 더 낮아져서 그 인격의 깊이를 더 깊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며, 모든 것을

고백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부족한 사람이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은 흐를 곳이 없는 가장 낮은 곳에 머물게 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런 그를 우리는 위대한 사도였다고 일컬으며 존경하는 동시에 성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이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물은 좁은데서 넓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모여서 시냇물이 되고 강이 되고 마침내는 바다가 되어 흘러갑니다. 단순히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면서 점점 넓어집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넓게 하여 큰 바다를 이룹니다. 시냇물이나 우물물은 작은 돌맹이 하나만 떨어져도 요란을 떨고 파문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바다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파문이 없습니다. 언제나 제자리를

두고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대구영락교회를 담임하고 있을 때 주일이면 전 교인이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식사 후에 설거지를 하는데 늘 연세가 있으신 권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팔을 걷어 부치고 설거지를 도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큰 고무다량이에 교인들이 식사할 때 사용한 식기와 수저 그리고 온갖 조리기구들이 다 담고 담습니다. 그것을 닦으려고 고무다량이에 손을 넣으면 때로는 포크에 찔리기도 하고 칼에 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날카롭게 날이 서서 찔르고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만져가며 오물을 닦아내고 맑은 물로 씻어내면 마침내 다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과 기구들로 변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저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이 고무다량子和 같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 모든 것을 다 담아서 마침내 깨끗한 새 것으로 변화하는 고무다량이가야말로 하나

산에서 풍화작용에 의해 돌이 깨지면서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냇가나 강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물은 그런 돌들을 감싸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일 년, 십 년, 수천 년을 쉬지 않고 감싸면서 흐릅니다. 그러면 점점 그 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모양이 부드럽게 바뀌어 갑니다. 돌 안에 감추어져 있었던 문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의 멋진 수석이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신 뒤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루가 채 지나기도 전에 제자들이 자신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떠날 뿐 아니라 그 중에 한 제자는 자신을 팔 것이라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발을 정성을 다해 씻어주시고 만져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부드럽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부드럽게 감싸고 품어주심

오늘 이 시대도 노자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은 듯합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내진 여러분들은 하나님나라의 흰 실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흙탕물 같이 오염된 세상 한 가운데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좇아 점점 혼탁해져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써 그들 곁에서 도도하게 흰 빛을 지키고 살아가므로 이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져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의 생수가 될 때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조금씩 맑아지고 깨끗해져갈 것입니다. 어느새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저물어가기 전에 나 자신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나는 생수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닮아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흙탕물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흐르는 생수가 되어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아는 게 힘들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자녀들과 함께 성경적 세계관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문화생활의 시작 크리스마스 영화들을 추천합니다!

아래 영상들은 온가족이 함께 시청하기에 적절하며 가장 적절한 연령대도 명시하였습니다. Tvnext.org에 가시면 영화 제목 옆의 링크를 누르면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영어가 편한 자녀들을 위해 영어로도 summarize를 해놓았습니다. 최고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풍성한 성탄절 되시길 기도합니다.

나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청년의 이런 차가운 모습 뒤에는 그의 마음을 시베리아 얼음보다 더 차갑게 얼려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16세의 어린나이에, 그것도 크리스마스이브에 자신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모든 것에는 자기의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인생의 가장 큰

Sierra Nevada. Her son, Thomas, who attends art school, determines to make the transition from amateur to professional painter to help save the family's home. This is an interesting and entertaining film for the holidays. It's one the whole family may enjoy over Christmas and find a message of hope and peace for their lives, families, and futures.

이 영화는 토마스 킨케이드의 삶을 그리기 때문에 197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연출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크리스마스 되기 몇 주 전에 그의 어머니인 메리 앤 킨케이드가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부딪치면서 캘리포니아 플래커빌에 있는 작은 집마저 잃게 되기 직전이 되고, 결론적으로 가족의 집을 구하기 위한 아들들의 감동스런 노력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차분하지만 은은함 속에 온가족이 크리스마스에 함께 보며 영화 속의 주인공들의 삶, 가족의 의미, 미래를 위한 희망, 특별히 성탄절에 주인공 되신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영화 3: Superbook-The First Christmas

https://www.youtube.com/watch?v=Ty3vrOoWtNM 어린이들에게 강력추천합니다. "The First Christmas" is an episode that takes you back to witness the birth of Jesus and to learn the importance of this story. When Superbook brought Chris, Joy, and Gizmo back during the nativity of Jesus, they realized the importance of family, especially upon meeting Joseph, Mary, and

Jesus. Also, they got to learn the lesson of love, particularly the one that exists among the family, especially Chris as he learned how to value his parents. They also learned to give honor to someone just like what the shepherds and the Wisemen did to the baby Jesus.

Superbook은 저희단체가 늘 추천하는 시리즈들로 매우 유익한 내용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The First Christmas"(첫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목격하고 이 이야기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에피소드입니다. 슈퍼북의 주인공들인 크리



스, 죠이, 기즈모가 타임머신을 타고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시대로 돌아왔을 때 이들은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름다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가족들 가운데 존재하는 사랑의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특별히 크리스는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목동들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정중히 그리고 겸손히 대한 것처럼 사람들을 존중하는 소중한 가치의 인간관계법칙을 배웠습니다.

그 외는 Tvnext.org나 Facebook에서도 Tvnext.org를 찾으시면 됩니다.



추천영화 1: By God's Grace(크리스마스이브에 일어난 일)

영령과 상관없이 온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이며 모든 면에서 강력추천합니다.

When a 16-year-old boy loses everything on Christmas Eve, a special visitor demonstrates that even in the darkest times, God is always there.

이 영화는 한 젊은 청년이 아버지가 수 십년간 이루어놓은 비즈니스를 매우 냉철하게 이끌어가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청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도, 바로 눈앞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으로 힘든 사람에게도, 오래된 옛 친구들에게도 매우 냉정하고 일밖에 모르는 젊은 청년으로

트라우마를 쫓고 숨기고 있던 그에게, 특별한 손님이 찾아오며 그동안 쫓고 가두어놓았던 자신의 질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자유해지는 여정을 아름답게 그려낸 영화입니다.

추천영화 2: Thomas Kinkadee's Christmas Cottage

https://www.youtube.com/watch?v=-ZbTL_QIOh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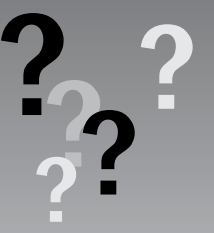
High School & up에게 더 추천합니다.

In the weeks leading up to Christmas 1977, Maryanne Kinkadee has fallen behind in her mortgage payments and is about to lose her small house in Placerville, a town in California's gold country in the foothills of the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목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신학교 졸업반 학생인데 조직신학 강의 시간에 교수님이 기적, 예언, 방언 및 축사는 사도시대에 끝났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를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을 근거로 주장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에서 온전한 것을 성경 완성으로 해석하여 방언도 부인하는데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기도시간에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어 시험이 듭니다. 정말 그것이 그러한지? 목사님의 바른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텍사스에서 김 전도사

A: 이 질문은 은사중지론과 은사계속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사이에 첨예하게 논쟁하는 성령론의 문제로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은사중지론을 주장하는 학자들과 목사들은 고전 13:8-10 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중지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언이나 예언 등을 부인합니다. 필라델비아 웨스트민스터신학교를 졸업한 구요한 목사의 "Desire the miraculous gifts"의 책에 의하면 히포의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그는 처음에 은사중지론자였다. 그러다가 어거스틴은 나중에 불치의 암에 걸린 친구가 기적으로 낫게 되는 것을 보자 기적중지론을 버리고 기적계속론자로 돌아서고 그 유명한 하나님의 도성(The city of God)에서 이렇게 말했다. "기적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되고 있다...그러나 오늘날에도 기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끔 성찬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그 전까지 방언 계속

고전13:8-12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but when completeness comes)의 헬라어는 "토 텔레이온"으로 완전한 것, 성숙한 것, 최후의 것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세대주의 기적중지론자들은 이것을 "완성된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성경 계시가 완성되면 부분적인 은사는 없어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하나님을 희미하게 아는 것과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안다는 앞뒤 문맥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온전한 것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진 성숙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것도 잘못입니다.

여기의 '온전한 것이 올 때'의 온전한 것은 문맥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부분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방언이나 예언은 태양 앞의 촛불처럼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오는 재림 때까지는 방언이나 예언은 아직도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개핀이나 웨인 그루렘도 온전한 것을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개혁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교수인 조대준 교수도 그의 책 성령론에서 "여기의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는 방언이 계속된다고 보는 것이 성경해석적으로 타당하다. 성경에 방언이 중지되었다고 분명하게 가르치는 구절이 없다"며 "현재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p.297-298).



Midwest University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고등교육국(BPPE)과 연방정부 인가기관의 인준을 받아 토렌스와 어바인 캘리포니아에 site를 오픈합니다

Torrence 음악대학원 안내 Graduate School of Music

- 학위과정
- MM. Master of Music
- DMA. Doctor of Musical Arts
- Midwest Certificate Programs
- Worship Leader Program
- Church Music Minister Program

Torrence site: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Irvine 어바인에 오픈하는 학위과정

- BA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S Aviation Management 조종사, 정비사
- MA Counseling 라이프디자인, 가족, 결혼, 정신건강, 기독교상담
- MBA 혁신경영, 항공안전, 리더십, 공공정책, 스포츠경영
- M.Div, D. Min 상담, 교육, 선교, 목회
- Ph. D. in Counseling Psychology 라이프코칭, 결혼가정, 정신건강
- Ph. D. in Education 두뇌개발, 영재교육
- Ph. D. in Leadership Pastoral Leadership

Irvine site: 240 Goddard, Irvine, CA 92618

학점,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미국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SEVIS I-20 혹은 J-1 Visa
2. 직장과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세계 어디서든지 소집특강 및 Online 으로 학점취득 가능
3. 영어, 한국어 언어에 구애없이 학점취득 가능
4. 타 대학에서 받은 학점 최대한 인정하여 편입가능

학교소개

- 미국 연방정부 교육부의 정규대학교 인준 (USDE) & CHEA
- USDE (미국연방정부교육부) www.ope.ed.gov/accreditation
- 미국 대학 학력, 학위 인정기관 (CHEA) www.chea.org
- ABHE - Accredited Status
- 국제 항공 안전협회 ISASI 회원대학교
- NC-SARA 인준대학교.(www.nc-sara.org)
- Texas, MO, CA 주정부 교육부, 연방정부인가기관 인준받은

목회와 선교

백운영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



“우리과 같이 되신 예수님”

한국에 미국 선교사님이 도착하여 충정도에 사역지가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많이 서투릅니다. 마침 이발소에 가야 했기에 한 이발소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왔시유~”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 이런 시골 지역 이발사가 영어를 해네? 라고 조금 놀랐습니다. 영어로 “What see you?” 라고 들은 겁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울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mirror” 라고 답을 했

습니다. 그랬더니 이발사가 웃으면서 이발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머리를 뒤에서부터 앞까지 다 밀어 버렸답니다. 물론 우스개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두 분이 대화는 했지만 전혀 소통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 간에 대화는 하지만 소통이 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담이 막힌 인간들에게 ‘사랑한다’ 소통하셨지만

죄인들은 마음에 담지 않았습니 다. 성민으로 선택하시고 직접 삶의 목적을 주셨지만 항상 배반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 갔던 죄인들입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아무리해도 대화가 안 되니 소통을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낸신 것입니다.

동남아나 인도네시아는 일년에 두 개의 계절만 있습니다. 우기와 건기는 일년에 각기 특색 있고 변화를 주는 계절입니다. 건기 때는 말 그대로 비가 오지 않아서 말라있는 시절이고 항상 물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기가 시작되면 그 이후 반년동안 매일 비가 옵니다. 물론, 하루 종일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 한두 차례 강한 폭우가 쏟아지기에 우기가 오기 전에 지붕을 손보는 것은 매년 연례 행사와 같이 아주 중요한 일종의 하나입니다.

한번은 제가 책임을 맡고 있던 신학교 산하 선교훈련원의 지붕을 손보던 훈련생이 저에

게 달려와 지붕 처마 밑에 새둥지가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지붕에 이물질은 치우고 새로 페인트를 칠해야 하려면 동지를 치워야하는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미 새가 근처에 있는가 둘러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빼앗아고 물어대는 새끼들을 구슬리며 새둥지를 떼어서 건물 뒤쪽 나무의 나뭇가지 사이에 옮겨 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에 어미 새가 둥지가 있던 곳에 와서 화난 듯이 날개 짓을 하면서 서글프게 울어댁니다. 그때 저는 그 새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이리와 봐, 내가 네 새끼들이 어디 있는지 알려줄게” 아무리 손짓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혹시나 해서 인도네시아 말로 해봅니다. “Ayo, ikuti saya, akan menunjukkan kemana bayikunnya” 그래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영어로도 말해봅니다. “Hey, come follow me, I will show you where your babies are” 여전히 소통이 안됩니다.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잠시 새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으랴...

우리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그냥 하늘에서만 하지 않았습니 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소통이 막힌 죄인들에게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가장 낮은 말구우에서 태어나심으로 그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느” 바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성육신”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우리의 이웃 사랑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아니면 잠시 시간 내어서 하는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행동이 따뭇해야 하고 내 중심적이 아닌 그들의 마음에 닿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의 사랑 표현이 성육신적인 사랑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교회들이 자기 교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선교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가지고 들어가서 현지 주민들과 상관없이 펼쳐내고 자기만족에 도취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자신들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사역을 진행하지만 현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 될 때는 저는 서슴없이 그런 팀들을 거절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지 상황을 모르면서 자신들 교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들어와서 선교지에서 진행하려는 시도는 자기만족밖에 안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아들을 보내셨고 우리와 같이 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들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ck@hot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세계 최초 발송문자는 “메리 크리스마스”

21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최초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가 경매에 오른다. 문자 내용은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다.



영국의 이동통신사 보다폰은 최근 트위터에서 15글자의 단문 메시지 ‘MERRY CHRISTMAS’를 NFT(대체불가토큰)로 발행해 경매에 내놓는다고 밝혔다. 경매는 프랑스 파리 최초의 독립 경매소인 ‘아구트(Aguttes)’에서 진행된다. 경매는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하다.

NFT는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자산으로 주로 사진, 영상, 음원 등 디지털 예술품에 소유의 인식값을 부여한 것으로 소유권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원본 증명에도 활용된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이 문자 메시지의 낙찰가는 15만~17만 파운드 정도로 예상된다.

이 메시지는 1992년 12월 3일에 발송된 것으로, 영국 프로그래머 빌 펠워스(당시 22세)가 보다폰의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개발하던 중 당시 보다폰 이사였던 리처드 자비스에게 시험 전송한 것이다.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가 탄생한 순간이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펠워스는 훗날 “문자 메시지가 이렇게 대중적인 서비스가 될 줄 몰랐다. 지나고 보니 내가 보낸 크리스마스 메시지가 모바일 역사의 전환점이 됐다”고 회고했다.

보다폰 측은 “블록체인과 NFT의 발명은 문자 메시지가 이룬 엄청난 진보에 비견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보다폰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진행되는 이번 경매 수익금을 전액 유엔난민기구(UNHCR)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다폰은 세계 최초의 문자 메시지를 NFT로 발행하는 것은 이번 한 번뿐이라고 공언했다.

SD주, 공립교 ‘기도의 시간’ 위한 법안 제출

사우스다코타주 크리스티 노엄 주지사는 공립학교 학생들이 매일 아침 학교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노엄 주지사는 지난 13일 학교의 수업을 시작하기 전 묵상의 시간을 갖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한 뒤, 관련 성명을 통해 “모든 학생들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학교에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이 시간을 이용해 짧게 기도하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시간을 어떻게 이용하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주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학기 중 매일 아침 학생과 교사들에게 최대 1분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침묵의 순간은 ‘자발적인 기도, 성찰, 명상 또는 다른 조용한 활동’ 등으로 사용될 수 있다. 법안은 “학교의 어떤 직원도 침묵의 순간에 학생이나 교사에게 특정한 행동을 지시할 수 없으며, 어떤 학생도 다른 학생의 시간을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법안에 사용된 용어가 학교가 침묵의 순간을 종교적 행사로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해석되어선 안 된다”는 사실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학생과 교사에게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배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의 있는 분위기를 정하기 위해, 개학 초순에 묵념의 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우스다코타주는 선출직 공무원들이 학교 내에서 잠시 침묵하는 시간을 갖도록 압박하는 일부 주들 중 하나다.

미국인 45% “매일 기도” ...

퓨리서치센터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45%가 매일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전보다 6%, 10년 전보다 10% 감소한 수치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가 5월 29일부터 8월 2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성인 중 32%는 “기도를 거의 하지 않거나 절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는 자신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또는 “특별히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인 29%와 거의 일치한다.

퓨리서치는 매일 기도하는 미국인의 비율이 2007년 58%, 2014년 55% 비해, 올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은, 미국의 세속화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교인 수는 계속 감소하는 반면, 종교와 무관한 이들의 수는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독교인은 여전히 미국에서 가장 큰 종교집단이며, 성인 인구의 6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퓨리서치가 2007년 발표한 ‘미국인의 종교적 정체성에 관한 보고서’에서 기독교인의 비율은 78%, 종교와 무관한 미국인은 16%에 불과했다.

이 보고서는 기독교 감소가 주로 자신을 ‘개신교 신자’라고 밝힌 응답자들에게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개신교인의 수는 지난 10년간 10%, 5년 동안 4% 감소했다.

설문에 응답한 흑인과 백인 개신교인의 과반수는 “거듭난 기독교인 혹은 복음주의 기독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백인 개신교 신자 중 58%, 흑인 개신교 신자 중 66%가 각각 이 같이 응답했다.

교회 출석에 관해서는 흑인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70%는 매달, 63%는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은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백인 복음주의 개신교인은 56%, 가톨릭 신자들은 35%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에 참석한다고 답했다.

오픈도어, 성경 10만권 지원기금 확보

국제 기독교 박해감시단체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성경 10만 권을 전 세계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낼 준비를 마쳤다.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오픈도어는 최근 페이스와이어(Faithwire)를 통해 아프가니스탄, 북한, 나이지리아와 같은 국가의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10만 권을 보낼 기금 모금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현지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한 권당 7달러다.

기금 모금은 오픈도어가 지난달 23일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박해가 심화되고 있음을 알리는 이메일을 후원자들에게 발송하며 시작됐고, 30일 ‘베푸는 화요일’ 행사를 중심으로 모금이 이뤄졌다. 당시 이메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라고 쓰여 있다.

또한 가장 큰 기부금액을 두 배로 늘려주는 ‘챌린지 그랜트(Challenge grant)’ 방식을 도입해 모금의 효과를 배가시켰다.

미국 오픈도어 데이비드 커리 회장은 “이번 모금이 미국 정부가 여태 본 것 중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다. 그는 “성경 배포 사업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미국인들이 이 도전에 맞서서 일어서는 모습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박해받는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 2021년 ‘최악 기업’ 1위 선정

최근 ‘메타’로 회사명을 바꾼 페이스북이 올해 최악의 기업으로 평가됐다. 포क्स비즈니스 등 주요 외신은 19일 이후 파이낸스가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 ‘올해의 최악 기업’ 1위에 메타가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올해 최악의 기업 1위로 뽑힌 페이스북은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알리바바’보다 50% 가량 더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검열에 대한 우려, 인스타그램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 등 페이스북에 대해 많은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설문조사 참여자의 약 30%가 페이스북이 만회할 수 있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회 청문회에서 폭로된 페이스북 산하 인스타그램의 강한 중독성이 어린이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부 보고서를 회사 매출 확대를 위해 무시한 것이 알려지며 비난 여론이 거세다.

앞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핵심 직원의 내부고발 스캔들 속에서 사명을 ‘메타’로 변경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페이스북이 회사명을 변경해 신규 이용자 유치와 다른 연령대 이용자 이탈을 막아 회사에 타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올해 최고의 기업’ 조사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를 차지했다. 야후 파이낸스는 매년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올해의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외신 ‘김정은 10년’에 부정 평가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사망했다. 13일 후 그의 아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7세의 나이로 당시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돼 최



고 권좌에 올랐다. 젊은 지도자의 등장은 북한 주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를 향한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제 개혁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국민층은 증가했고 각종 경제 개혁에 국제적 고립은 심화됐다.

주요 외신들은 17일 김 국방위원장 사망 10주기를 맞아 그의 아들인 김 국무위원장 치하 10년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성적표를 내었다.

영국 BBC는 “젊은 지도자의 등장으로 변화를 기대한 북한 주민이 많았지만 북한은 결과적으로 더욱 가난하고 고립된 국가가 됐다”면서 “김 위원장에겐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줄 힘이 있었지만, 2500만 북한 인민들은 자유를 얻지 못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처지에 놓였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2012년 연설에서 “북한 주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까지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통일부가 전달 배포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 따르면 북한 경제는 2016년까지는 대체로 작은 폭의 성장률을 나타냈으나 2017년부터는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서 지난해까지 역성장, 저성장 기조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2012~2014년 북한은 1% 초반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2016년엔 3.9% 성장을 이뤄냈지만 이후 2017년 -3.5%, 2018년 -4.1%, 2019년 0.4%, 2020년 -4.5%로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이 지난 15일 공동으로 펴낸 ‘2021 아·태 지역 식량안보와 영양 개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 부족 비율은 42.4%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통신도 “김정은 치하에서 북한이 더 강한 국방력을 갖췄지만 크게 고립됐고 중국에 더욱 의존적인 국가가 됐다”면서 “김정은의 첫 10년은 ‘핵무기 추구’로 정의된다”고 진단했다. 집권 초기엔 김 국무위원장이 북한 경제를 개혁하고 한·미와의 관계에서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 전망이 있었지만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진 못했다라는 평가다.

AP통신은 김 위원장이 대대적인 숙청으로 권좌를 공고히 한 뒤 핵무기 개발에 자원을 쏟아부어 2016~2017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이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심화했고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성명을 내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전날 “김정일 사후 잔혹한 통치 10년”이라는 글에서 “김정일 사망 이후 그의 아들 김정은이 10년 동안 주민에 대한 감시와 억압의 수위를 높이고 국내외 이동의 자유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리나 윤 북한 전문 선임연구원은 “김정일이 유년기에 남긴 것은 1990년대 수습만 혹은 수백만명의 죽음”이라며 “김정은 역시 잔혹성과 두려움, 억압을 이용한 공포 정치로 인권 탄압과 경제난, 굶주림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선교 안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37. 유경상(1904-1976)

유경상은 1904년 1월 20일에 강원도 통천에서 출생했다. 그는 20세가 되던 1924년 보광보통학교에서 교편을 잡아 이듬해까지 근무했다. 교편을 잡던 그는 연희전문대학에 입학하였고 본 대학을 졸업하면서 학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모교인 연희전문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한 것으로 보인다.

영역선교를 유경상이 한국어로 통역하였을 것이다. 예배 후에 계삭회가 있었다. 그날 골로아와 엘리엘리 두 지방을 제외한 두 명의 대표가 있었는데 총 25명이었다.



유경상 목사

이날 계삭회에서 예배당 임원을 선정하였다. 가파 예배당 임원으로 조지삼을 권사 겸 재무로, 전소연을 고 김상회의 후임으로 탁사 겸 재무로 선정하였고, 각각 하 예배당 임원으로 이경서를 권사 겸 재

예배당을 새로 수리하던 중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유경상이 가와이 터미널 주인 피카 씨와 정부에 교섭한 결과 그해 9월 첫 주일부터 엘리엘리에 있던 일본인의 학교를 한인 예배당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100여 달러를 들여 교회 자동차를 수리하였으며 프라이 감리사가 청년들의 예배를 위하여 영어 찬송가를 기증하였다.

그리고 1934년 12월까지 들어온 헌금은 가파 교회에서 22달러 50센트, 각각 교회에서 19달러 35센트, 엘리엘리 교회에서 18달러, 가파 교회에서 11달러였다. 그해 주보작성에 7달러를 지급했다. 한 해 동안 외국인의 기부도 있었는데 가파 예배당 수리를 위하여 75달러를 헌금한 이선벽 부인 외에도 L.C. 월라스 여사가 75달러, 메블 월라스 여사가 75달러 그리고 호너 씨가 150달러였다.

이날 계삭회가 마치면서 프라이 감리사를 모시고 후지 카페에서 8, 9명이 모여 오찬회를 가졌다.

엘리엘리 교회 교인 고 전시문의 부인은 1943년 12월 7일에 적십자회를 통하여 본국에 있는 남동생에게서 다 잘 있다는 기쁜 소식을 1944년 1월 3일에 받아 전 부인은 안심하며 기뻐하였다. 다른 한편 김 가파 농장 양노원에 있던 조지주는 1943년 12월 13일에 향년 89세에 별세하여 유경상 목사의 사회로 안장하였으니 한 달 사이에 희비가 엇갈렸다.

1944년 2월에 보고된 연회와 세계구제금으로 헌금한 사람과 헌금액은 아래와 같았다. 정호영 10달러, 김재홍 8달러, 전

성한 윌리엄 H. 프라이 감독은 유경상이 가파에 거주하면서 가와이 한인선교부를 맡고 있음을 보고하면서 그해에 그가 안 식년을 가겠다고 적었다.

R.M. 스카이어가 작성한 1943년과 1944년의 하와이 선교연회 통계에 따르면 총 세례수는 82명이었다고 비겨주 교인이 5명이었으며 전출되거나 사망한 교인 수가 3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19명이었다. 예배당에 소요된 비용이 165달러에 예배당 운용비가 597달러였는데 이는 특별 헌금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세계봉사 등 해외선교비로 40달러를 사용했으니 유경상의 사례비 연봉이 94달러였는데 그해 한 해 사례비의 거의 반에 해당했다.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유경상은 태평양 주보에서 만난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의 손노드의 소개로 1944년 9월 12일에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유경상 목사의 묘비

1945년 1월 7일 주보는 당시 교회 형편을 보여준다. 한글과 영어의 이중언어로 되어 있었는데 영문은 타자하였고 한글은 손으로 썼으며, 제17호라고 적어 유목사가 부임한 후부터 17번째 주일임을 표

산재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소식을 통할 길이 없으므로 하와이에서 되는 일을 미국에서 모르고 미국에서 되는 일을 호랑에서 모르게 되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마귀는 미포한인기독교교인을... 푸치며 거짓 선전에 진력하여 마치 기독교회가 잔멸하는 것처럼 꾀하는 중에 있다. 믿음이 연약한 교우들은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어 진가를 분별치 못하고 선악을 구분치 못하는 것이 딱하다. 그러므로 이런 교보를 통하여 각자 교우들이 이전보다 더 긴박하여 힘을 한데 합하여 이 세상 마귀들을 파멸하고 지상 천국을 속성하는데 일조가 될까 한다...사비비교인들을 경성하여 우리 한인 구령사업에 경종이 되며 계명성이 되기를 자기하는 바이다." 곧 하와이 각처에 산재한 한인기독교회 교인과의 소식 나눔, 한인 구령 사업의 경종, 계명성이 됨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가 직접 손으로 쓴 2, 3쪽을 복사하여 무료로 배부하였다.

1946년 5월 22일자 한인교보에 '교회 충성의 필요'라는 제하의 글이 있다. 유경상의 글로 보이는데 교회충성은 일단 가지 충성의 근본인데 이는 형식보다도 본질을 위주 하는 것이라 적고 사회 충성은 자기의 영예와 이욕으로 충성심이 좌우되기 쉬우므로 교회에 충성하는 자가 끝까지 사회에도 충성한다고 적었다.

그해 6월 5일자 한인교보에는 '심령을 개조하자'라는 사실이 있다. 심령생활이 모든 생활의 중추가 되어 지배력이 되는 까닭으로 심령개조가 있고 난 후에 개인 구원도 사회구원도 국가건설도 된다고 적었다. 1945년 말부터 목사 지지자와 반대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가운데 나온 글로 보인다.

1946년 6월 16일 평신도 회의가 모여 유경상의 사면을 결정하고 7월 31일까지 사무하도록 했으나 목사 지지파와 반대파 등 두 파로 갈라선 교인 사이에서 그는 목회를 계속했다.

1948년 4월 25일에는 교회 주최로 최근 한국에서 결혼하고 돌아온 교인의 자제 부부와 한국에서 온 유학생을 위한 만찬이 있었다. 미군정 하에 한인 2세대들이 한국에 주둔할 때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본 교회 교인으로는 13가정이나 있었고, 본 교회에 출석하던 유학생은 10명이었다.

이승만이 추천한 김태목 목사가 유경상에 이어 본 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던 때가 1948년 10월이므로 그때까지 유경상이 목회했다. 이로써 그의 목회는 3년 9개월로 보인다.

교회 목회를 떠난 유경상은 하와이 대학에서 1년을 가르쳤고 1950년에 호놀룰루의 잭슨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1976년 7월 25일에 향년 72세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미국 매릴랜드주 프린스 조지 카운티 브렌트우드에 있는 포트 린컨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그는 아내 한상희에게서 딸 매리를 두었다.

damiem.sohn@gmail.com

골든게이트대학 사임 후 3년 9개월 사역, 잭슨대학 교수로 재직 하와이 가와이 한인감리교회,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서 담임목회

무로, 한매리를 탁사 겸 재무로 그리고 박순이를 탁사로 선임하였으며, 엘리엘리 예배당 임원으로 이춘서를 탁사 겸 재무로 그리고 권병선 부인을 탁사 겸 재무로 선정하였고 가파 예배당 임원에 정원현 의사와 정준영을 탁사로, 이정근을 재무



유경상의 날인(1942년)

에 선임하였다.

그리고 이날 보고에 따르면 각각 동포들이 100여 달러를 헌금하여 목사 사택에 필요한 침대와 기타 가구를 구매하였고, 가파 동포들이 52달러를 헌금하여 예배당을 수리하였고 최종만이 차고를 지었으며 이선벽 부인이 가파 예배당 수리를 위하여 75달러와 속사기 구매비 30여 달러를 헌금하였다.

이날 보고된 바로는 파인애플 농장주인 호너 씨가 목사에게 매년 50달러를 기부하기로 하였다. 각각 사랑농장에서

소연 7달러, 이정사와 이정근과 조지삼과 정준영이 각각 6달러, 구화실과 김광문과 이성화와 이희순과 정원현이 각각 5달러, 정광조와 고운한과 권병선과 동부인과 문봉섭과 동부인과 최치명이 각각 4달러, 최종만이 3달러 75센트, 김영길과 우갑덕이 각각 3달러, 김용식과 김창호와 김태하와 이봉담과 이익선과 유성호와 양남수와 이춘서와 이춘식과 박근실과 백수남과 아비라포와 우두현과 한매리와 전병규와 전시문 부인과 이주선 부인과 정학수와 최 철과 하태금과 허봉일이 각각 2달러, 강정빈과 박순이와 박 문이 각각 1달러 50센트, 방창엽과 손영찬과 신피터와 한영호가 각각 1달러였다. 위의 명단에서 교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당시에는 헌금액을 명확하게 밝히는 관습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가와이 교회에 부임했던 1943년 여름에 유경상은 이승만의 요청으로 태평양 주보' 주필을 맡았다. 교인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 호놀룰루 한인기독교회로 가던 그해 9월까지 본 교회에서 목회하였으니 목회기간이 약 6개월이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1944년 하와이 감리교 연회록을 작

시하였다. 품급 반주자는 박근였다. 이날 그는 빌립보서 3:13-16을 본문으로 하여 '목적 있는 생활 The Life of Purpose'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 후에 신년 첫 임원회가 있었고, 2차 세계대전말 대한부인구제회(적십자사)가 주동이 된 적십자사를 위한 봉대 집기 시간도 있었다. 그해 1월 1일부터 한 주간 신년기도회가 있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사이판 한인들에게 찬송가와 성경 그리고 손품금을 보낸다는 소식도 읽을 수 있다.

1946년 부활절 예배는 500여 명의 청년과 300여 명의 노인이 참석한 가운데 선교부 주일로 모였는데 유경상은 '정신적 부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영어로 설교했다. 이날 유아세례를 받은 자가 40여 명이었고, 성인 1명이 세례를 받았다. 예배 후 점심을 먹은 후 주일학교 학생들이 '달걀' 경주를 하였다. 이날 헌금은 451달러 74센트였다.

1946년 5월 9일부터 유경상은 한인교보(Korean Crusaders)를 발간했다. 그는 '한인교보를 장간하면서!'라는 제하에서 "본보를 발간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우리 한인기독교회가 미포 각처에 수천 명이

도미

신한민보는 연희전문학교 교수 유경상이 유학차 1937년 6월 9일에 도미했고 천사도 이민국에서 상륙하게 되면 시라큐스 대학에서 약 2년간 유학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경상의 영어 이름은 Kingsley Kyungsang Lyu였다. 그런데 신한민보의 보도와는 다르게 그는 노스캐롤라이나주 달렘에 있는 듀크신학교에서 목회학사 과정을 마쳤고 1941년에 본 대학교에서 조교로 활동했다. 이듬해인 1942년 2월 16일에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징집서류를 제출했다. 그해 7월 23일 자의 신한민보가 그를 듀크대학을 졸업하였다는 보도는 듀크신학교에 대한 오기라고 본다.

유경상은 1942년 가을학기에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대학의 교수가 되어 이듬해까지 일본어와 동양철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와이 가와이 한인감리교회

유경상은 1943년에 미국 북감리교 캘리포니아 지방회에 가입하면서 그해에 목사안수를 받았다. 이듬해 초에 하와이 가와이 지역 한인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아 이곳에 산재한 세 한인감리교회를 목회했다. 유경상이 부임한 지 5개월이 되었을 때 가와이 섬의 가파, 엘리엘리 그리고 각각하의 세 곳 한인감리교회에서 매주 주일 한인동포가 평균 5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교인들은 예배에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도와 열심히 교회 일을 도모하였다.

1943년 12월 11일 오전 10시30분에 하와이 감리교 감리사 윌리엄 프라이 박사가 가파 예배당에서 '노력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이날 프라이 박사의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헌당예배: 오후 2: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후 10:00(토)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평일) 주일영양예배: 오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주일 학교: 오후 1:20 영아예배: 오후 1:20 영어전 (장소: KDC, 청림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희 목사 "계속해서 돌고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서비스),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정년특별부: 오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Tel: (310)749-476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유아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6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8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가족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선교교회 협동목사 상담사: (월-금) 오전 9:45~오후 4:00(토) 사역대상: 1. 유학생/2. 귀국예정자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3. 상담사역 4. 세례/5. 선교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침례: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세례기도: 365일 24시간 온로 Tel: (714)446-6200, www.gracemc.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평일)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세례: 오후 7:20(토)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jc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stonelv.com 2428 S. Western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주요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본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본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cg.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수요일모임: '영성경이' 원어예배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With Corona-19 문화: 종말론적 조명(Outlook)” (5)

종말론적 문화와 복음적 삶의 소통으로

그렇다고 현대문명에 대한 종말론적 계시는 단순히 현대악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응징과 심판, 그리스도의 구속의 승리만을 선포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성도들의 거룩한 삶의 융합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런 면에서 벌가우어(Berkouwer)의 언급은 아주 적절하다.

“성경에 설명된 종말론적 약속과 기대는 본질적으로 독립되어있거나, 종립적이거나 초자연적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한 지식을 주거나 미래의 사건들에 관한 어떤 통찰력을 주는 것만

그러므로 7년 대환란기를 통과해야 할 지상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를 행하고 거룩을 지향해야한다. 아직은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 중심의 성화의 삶이 요청되며 (딤후2:5),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마 5:13-16) 제사장적 소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별히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두루마리를 빼는 복된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도전받는 것이다.

(계22:11-14)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인 경건의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하여 부패해져간다 하더라도 의인은 완전한 거룩에 이르지 못하였기에 여전히 말씀과 기도 중심의 성화의 삶이 요청되며 (딤후2:5), 나아가 복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마 5:13-16) 제사장적 소명이 요청되는 것이다. 특별히 불의한 사회에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두루마리를 빼는 복된 사회를 지향하는 하나님 나라로 도전받는 것이다.

서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것이 었지손가락 넓이(thumb-breadth)만큼도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역사와...문화와...소명(직업)에 대한 철학이 들어 있는 것이다. 모든 직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그것이 연구이든, 가르치는 것이든, 전파하는 것이든, 상업, 산업적인 것이든 혹은 가정의 일 이든 간에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해지는 것이 되어야 한다”(Hoekema, Bible and the Future, 54).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본질적으로 종말론적이며 또 기독교적이다. 기독교 없이 종말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특새

우리 교회는 해마다 연말 특별새벽기도를 두 주 동안 진행한다. 첫 주는 한국어 강사들이, 둘째 주는 영어권 강사들이 초청되어서 말씀을 맡는다. 통역이 가능하므로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고 평일에는 새벽 5시, 토요일은 6시에 시작을 한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한 후 맞은 첫 특새 때 예배시간에 맞추어 갔다가 파킹장에 자리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본당 예배실이 딱 차서 자리가 없는 바람에 소예배실로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다. 5시에 예배가 시작인데 열심이 특신한 분들이 일찍부터 오는 바람에 본당에 앉으려면 적어도 30분 전에는 도착해야 하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잠도 안 깬 어린 자녀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대단한 열심에 감탄을 했다.

원래 우리 민족은 종교심이 강하다. 한국교회의 전통인 새벽기도 뿐 아니라 정한수를 떠놓고 지성으로 비는 것, 절에 가서 백일 불공을 드리는 것 등 우리 민족은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것 같다. 그래서 후시라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기도에 참석하면 하나님의 특혜를 받을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감으로 특새에 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참여를 격려하기 위한 특새 출석표가 교회 복도에 붙어 있어서 매일 참석하는 어른들은 개근 메달을, 자녀들은 후드 티셔츠를 준다. 교육학적인 면을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상을 통한 외적 동기유발을 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생각을 해왔다.

이렇게 특새에 대해서 가우뿔한 생각을 하던 내가 올해는 특새 개근을 했다. 그동안은 풀타임을 일을 하는 입장이어서 강의를 없는 날이나 토요일에만 특새에 참석을 했었다. 작년엔 코로나바이러스로 모 든 것이 움츠러 있을 때에도 우리 교회는 2주 동안 특새를 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지만 교회 본당은 열려 있어서 교회 역사 이후로 처음 텅텅 빈 예배당에서 띄엄띄엄 앉아 예배를 드린 후 기도를 했다.

나는 해마다 연말이면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며칠 간 일상을 떠나곤 했는데 작년엔 코로나바이러스로 아무 곳에도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교회 특새에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첫 한 주간을 교회로 갔다. 운전하고 가는 길에 하나님은 특정한 성경구절을 주시기도 하였고 기도하는 가운데 잔잔한 은혜로 채워주셨다. 둘째 주에는 몸이 힘들어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했는데 마음은 쉬웠지만 아무래도 교회 현장예배에 참여했던 첫 주 같지는 않았다.

올해도 역시 개인적인 리드트를 가기에는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다시 교회 특새에 시간을 드리기로 했다. 집이 교회에서 좀 먼 거리여서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었다. 항상 새벽기도 가면서 느끼는 것은 그 이른 시간에도 프리웨이에 이미 출근하는 차들과 트럭들로 분주하다는 것이다.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도 이른 새벽부터 움직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 이른 새벽을 깨우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에 기뻐하시려는 거룩한 산재사로 드리는 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특새 첫 날 예배당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예년보다는 조금 덜 복잡했지만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에도 힘쓰고자 하는 성도들의 열기가 느껴졌다. 추운 새벽부터 파킹을 위한 봉사를 하는 분들, 추가 주차장에서 교회로 성도들을 태워 오는 봉사를 하는 분들, 간단한 아침식사를 런치 백에 담아주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등 수많은 분들의 봉사로 이루어지는 특새였다.

강기가 있는 날은 힘이 들어서 눈에 실핏줄이 터지기도 했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깨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특새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회개와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다. 참여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임을 알기에 시편 65:4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특새였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lpyun@apu.edu

“종말론은 마지막에 있는 일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 구성하는 것” 펜데믹: 상징적 문명 위기지만 성도의 삶 회복할 은혜의 기회 “창조와 구속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음을 확증”

이 아니다...종말론은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현재에 발생하는 것이며, 마지막에 있는 일들의 관점에서(berkouw, Return of Christ, 18-19).

비록 이 세상은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이 용과 짐승을 경배하며 그를 따르지만(13:1-8), 대조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성도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인내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모습(14:12)이 대조적으로 구별된다. 비록 교회와 성도는 환란과 핍박 가운데 놓여있지만 해산의 수고와 같은 진통을 통해 마침내 복음의 열매를 얻게 된다(12:1-17). 이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보호하신다(7:1-4; 12:11). 환란 가운데에서도 더욱 확실해 지는 복음적 삶의 승리의 모습들이 보석처럼 귀하게 증거되어진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은 이기고 또 이기는 백마 탄 그리스도(6:2)와 함께 대 환란기에서도 이기는 자들이다(17:14).

하라...두루마리를 빼는 자들(7:14)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며 함이라”

현대 과학문명의 발달가운데에도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치닫는 Corona-19 Pandemic 은 외형적으로 보면 분명 문명의 위기에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러나 동시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 더욱 거룩한 성도로서의 삶을 회복할 은혜의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With Corona 문화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셈이다. 인간 중심의 현대문명의 바벨탑이 높아질 때에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 드러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의 사인임을 읽어내며, 일용할 양식이 아닌 황금 만능주 의적 경제적 욕망이 만들어내는 사회악을 물리치고, 오히려 사회에 만연된 구조적인 악의 미혹을 막아내며 공평과 정의의 삶을 실현해 내도록 개인적

관과 박해를 직면해서는 기도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직, 간접적으로 총체적인 삶으로 실현해 나가는 자들이다(계14:12).

결국 종말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루어진(already) 하나님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통치 아래 평안을 누리며, 궁극적으로는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나라 확장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이라(계14:12).

이런 면에서 안토니 후크마(Anthony A. Hoekema)의 지적은 아주 시려 깊다. “그러므로 그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과 실제들을 우주의 구원의 목표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론 없으며 마찬가지로 종말론적 조명 없는 기독교도 없다. 결국 현대문명을 복음적으로 소통하는 것이야말로 종말론적인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우리의 삶의 자리(im)에서 세속적 성공이나 이기적 욕망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속을 담은 성육신적 낮아지는 섬김, 죽으시기까지 복종하는 희생의 삶을 통해 예수께서 바라본 하나님나라를 실현하는 삶이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살롬을 누리며 나누므로 인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움직이는 동선에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이다. 그러므로 코로나19와 함께 피조물이 탄식하는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구속이 일어남으로 인해 마이클 호튼(Michael Horton)이 얘기하듯이 창조와 구속은 구분되지만 분리되지 않음을 확증하게 될 것이다.

hyojungyoo2@yahoo.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다민족 교회 담임목사: 홍귀표 주일 예배: 오전 11:30 주일 그룹 기도회 및 기도회: 오후 1:00 주일 학교: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성경공부/기도회: 수요일 밤 8:00 디너/찬양/전도: 화요일 오후 4:00-7:00 Tel. (773)802-1112 estcross@yahoo.com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6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예배: 오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47	벤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토요일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일찬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 오후 8:00 Tel. (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ingham, MA 01948
안다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www.je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Tel. (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토요일예배: 오전 5:30(월-토) Tel. (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일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6675, www.tacomacr.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9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9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9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9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 N.Y. : Tel. (718)896-4400 nychpress@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 용서

테네시대학교 음악과 윌슨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강의안을 나누어줍니다. 강의안은 교수가 첫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과목을 한 학기 동안에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일종의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수가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을 자세하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교수가 나누어준 강의

안을 정독하고, 이해하고, 준비하고, 강의안을 따라서 공부하고, 리포트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은 교수가 나누어준 강의안을 완전하게 숙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들은 교수가 나누어준 강의안을 잘 읽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윌슨 교수는 학생들이 자신이 나누어준 강의안을 끝까지 잘 읽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시도합니다. 자신의 강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의안을 끝까지 읽은 학생이라면 현찰 50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강의안에 윌슨 교수가 학교 라커룸에 현찰 50불 숨겨 놓은 것을 획득하는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날 때까지 라커룸에 현찰 50불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현찰 50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자신들에게 있었지만 아무도 자신에게 예비되어 있던 선물을 가지지 못했

습니다. 왜냐하면 강의안을 끝까지 읽지 않아서입니다. 강의안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강의안에는 자신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지와 현찰 50불이라는 보너스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예비되어 있던 선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을 위해서 귀한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너무나 큰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에서 괴로워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비밀을 알려주는 선물을 예비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매년 12월 25일에 하나님께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선

물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선물을 모르고 죄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용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는 죄, 미움과 시기과 질투하며 살아가는 죄, 거짓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는 억

매금을 준다고 해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 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용서의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나 경고하고 회개하거나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vv.3~4). 성탄의 계절을 맞으며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yosupbois@hotmail.com

세계한인기독교언론인협회 독후감 공모전 / 우수상

책명: "간절한 매달림"

허양희 사모 (텍사스 주님의교회)



작년 4월의 텍사스 오스틴은 적막했다. 후덥지근한 바람만이 거리를 이리저리 헤집고 다닐 뿐 행한 모습이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는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묶어버려 가족 이외에는 만나기를 꺼리는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다. 그때 남편과 나는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쌀과 라면 그리고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나섰다. 아침부터 시작된 일은 저녁에서야 겨우 마무리되었다. 모두가 바이러스 감염을 심각하게 염려하며 외출을 삼가고 있었던 때에 우리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오스틴의 동서남북을走遍무진으로 움직이며 온종일 다녔지만 피곤함보다는 어르신들이 힘을 얻는 것을 보며 기쁨이 더 컸었다.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일년 반을 훌쩍 넘기며 지속하는 팬데믹과 함께 서서히 빛이 바래가던 어느 날 우연히 집어 든 신문물을 통해 신앙도서 독후감 모

집이라는 광고를 보며 회복의 기회를 찾게 되었다. 저자 토미 테니(Tommy Tenney)는 이 책에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냉랭하게 식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불을 지퍼주었다. 일상에 쫓겨 다니는 삶은 영적인 필요 대신 육신의 필요가 더 민감한 반응을 하게 되고 이는 하나님과 만남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웃시야 신드롬을 경계해야 하는데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방법이라는 자아를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다. 이 시대 기독교가 상관자적인 따뜻미지근한 세태를 나타내는 이유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가 부족한 데 있고 회개와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사는 종교적인 의식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열정

이라고 강조하는 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매달리라고 마무리한다.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은 한 해를 훌쩍 넘기며 지속하는 동안 나의 기도시간에도 타격을 주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 기도하던 것이 점점 형식적인 뭔가 매달라가는 듯한 느낌이 들게 했다. 나름대로 이 상황을 분석하며 돌파하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토미 테니(Tommy Tenney)의 "간절한 매달림"은 나를 진단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되었다. 기도를 드릴 때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다. 대개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것으로 인식하여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받는데 집중한다. 이러한 기도는 문제에 초점을 두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사리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고 빠지게 되어 당분간 하나님과 소원해지는 관계를 낳는다. 그러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게 되면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문제에 초점을 두며 기도 목록을 보고 기도할 때보다는 관계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영혼의 숨통이 트이는 것을 경험한다. 관계에 초점을 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이 지체되

며 깨닫는 것은 신앙의 헛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함과 회개가 그 내용이 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날마다 겸손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한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통한 지속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저자의 의견에 공감한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서 양분을 잘 섭취할 때 건강한 가지가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

데 자매들의 표정이 바뀌고 있다. 자매들이 한결 같이 하는 말은 말씀을 읽기 전과 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 가정에 임하는 태도가 확연히 변화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로 주눅 들어 있던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다고 고백한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면서 자매들은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그들은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쉽게 채울 수 있는 SNS를 통한 설교나 강의를 듣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 말씀을 직접 읽고 묵상하는 대가를 지불한 결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며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고 서로 도전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인 소그룹으로 진행된 것이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앙생활은 이렇듯 관계 안에서 함께 할 때 더 건강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 같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먼지 같은 인생이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 인생의 내용이 될 때 비로소 인생은 의미를 가지게 됨을 말씀 나눔 방은 증명해주었다. <12면으로 계속>

길잡이와의 의미 있는 만남

어도 실망하는 대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다리는 태도를 낳는다. 그래서 저자도 하나님 손에 있는 복을 간절히 바라는 대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고 권면한 것 같다. 다음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회개로 기도의 문을 여는 것이다.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이 꿈틀거리는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회개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자 건조한 기도 시간이 기름진 시간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다. 매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온 지 30년을 넘기

펜데믹을 지나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의 자매들이 여럿 있어서 그들을 돕기 위해 말씀나눔방을 시작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훈련으로 방법을 하우에 일정한 분량의 성경을 읽고 묵상을 기록한 후 일주일에 한 번 만나 기록한 묵상 중 하나를 함께 나누고 10분 통성기도를 하고 마치는 것이다. 자매들은 모두 2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으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했다. 지금 4개월째 진행하고 있는

Advertisement for 'Worldwide Church'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featuring various church branches in NY, NJ, and other regions. Each branch includes a pastor's name,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times. The main header is '동부(NY, NJ)교회'.

동부교계 기사판

“2022년 새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 박사)가 주최하는 “2022년 새해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가 2022년 1월 4일(화)부터 6주간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후 7시45분부터 9시30분까지, 5일(수) 오전 9시15분부터 11시까지 2개 시간으로 나눠 줌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50달러. 교재(“아주 작은 습관의 힘”)는 개인이 준비해야 하나 교재 없이도 참석이 가능하다. 강사는 양진희(성경적 상담 전공).

▲문의: (201)242-4422

뉴욕선교사의집 건물구입 후원

뉴욕선교사의집(대표 최문섭 장로) 건물 구입을 위해 후원하는 방법은 체크 “Pay to order of”에 “Sunny Foundation, Inc.”를 적어 다음 주소로 메일하면 된다. 주소: NY Mission Center, 142-03 29th Rd, Flushing, NY 11354

▲문의: (516)721-8101 최문섭 장로



뉴욕교협 주최 미스바회개운동 마지막 집회에서 강사 박성규 목사 인도로 합심기도하고 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자

뉴욕교협 주최 미스바회개운동 폐막

뉴욕교협이 주최한 미스바회개운동 총 13번의 집회가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 집회를 마지막으로 폐막됐다.

12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는 13일까지 최혁 목사가, 14일과 15일은 박성규 목사가 강사로 하루 4회씩 말씀을 전했다.

15일 오후 2시 예배에서 박성규 목사는 “하늘 문이 열릴 때”(눅3:21-2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며 “비둘기는 정결의 상징으로 기록해지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용서의 신앙, 눈물의 기도신앙,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 격려의 신앙을 갖자”고 전했다.

박 목사는 오전 10시 “지금 이 어느 때냐”(계7:1-4)라는 말씀에 이은 계시록 7장에 대해 설명하며 세계는 1)미국과 우방 2)러시아 중국 공산권 3)EU유럽공동체 4)이슬람권 등 4개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계시록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는 정치인, 거짓선지자

는 종교인, 백마는 복음전쟁, 적마는 사상전쟁, 흑마는 경제전쟁, 황마는 자원전쟁”이라고 설명하며 “마지막 때 이단이 성행하고 주님 재림 전에 나타날 7가지 징조”를 설명하며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주님 언제 오실 지에 상관없이 늘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면 된다”고 말했다.

오후 7시30분부터 시작된 마지막 집회는 임영건 목사 인도로 경배와찬양 살롬찬양팀, 회개기도 및 감사기도 양민석 목사, 김기호 목사,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 찬양 새부흥세대(ReNEW Gen), 설교 박성규 목사(“불이 임하는 제단”), 왕상18:30-40), 파송기도 김호성 선교사, 헌금송 케리그 마중찬단, 헌금기도 권캐더린 목사, 광고 김정길 목사, 축도 신현택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한편 뉴욕교협은 2022년 1일부터 3일까지 신년 금식 기도성회를 개최한다.

(유원정 기자)

성탄의 계절...뉴욕일원 음악회 만발

미주한인여성목회협의회 “여성목회자의 날”

성탄의 계절을 맞아 뉴욕일원의 한인교회 및 단체들의 성탄 음악회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9일 주일오후에는 뉴욕센트럴교회(담임 김재열 목사)의 이웃초청 ‘메시아’ 콘서트,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의 성탄축하 찬양예배,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회장 이진아 목사)의 정기연주회 등이 열렸다.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찬양예배

“메시아 맞으라 메시아 전하라”는 주제로 오후 4시 본당에서 열린 2021 성탄축하 찬양예배는 퀸즈장로교회 다민족 찬양팀들이 모두 참여했다.

예배는 송동을 장로 사회로 최미희 권사 기도 후 김성국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김성국 담임목사는 누가복음 2장 10-1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이 오신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에 따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며 “예수님 당시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제자 수도 적었다. 우리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잘 영접하고 온 세계에 잘 전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알고 복음전파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어 “메시아 맞으라”는 주제로 러시아권 청소년 무용팀

의 “참 반가운 성도여”를 시작으로 중국어권 찬양대(전사들의 캐롤, 아프리카 노엘), 임마누엘 찬양대(목자의 캐롤), 호산나 찬양대(아기 예수께 경배하세), G2G(아기 예수님, 예수 나셨다)가 각각 찬양했다.

특히 유초등부로 구성된 G2G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메시아 전하라” 주제로 진행된 찬양은 시온 찬양대(기뻐라하 복음의 소식), 아이노스 청소년 오케스트라(산위에 올라가서)가 연주한 후 참석자 모두가 “기쁘다 구주오셨네”를 합창했으며 김성국 목사 축도로 마쳤다.

한어권 뿐 아니라 영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 회중이 한 지붕아래 있는 퀸즈장로교회는 매년 각 회중들이 성탄축하 찬양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다.



퀸즈장로교회 성탄축하 찬양예배에서 아이노스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연주하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아 콘서트가 진행되고 있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공연에 앞서 회장 이진아 목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욕센트럴교회 헨델의 메시아 콘서트

뉴욕센트럴교회가 주최한 제11회 베네프 콘서트 헨델의 메시아 콘서트가 크리스마스 싱어롱과 함께 오후 3시부터 열렸다.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매년 갖는 이 콘서트는 올해 메시아 공연 11회를 맞은 것으로 지난해에는 팬데믹으로 공연을 하지 못했다. 그러나 팬데믹이 아직도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메시아 53곡 전곡이 아닌 1부를 중심으로 22곡만 연주했다.

음악감독 광병국 장로의 지휘로 교회 찬양대원들과 오케스트라가 함께 메조 소프라노 박영경, 테너 윤우영, 소프라노 애실리 벨, 바리톤 마이클 난셀 등 솔리스트들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마지막에는 크리스마스 캐롤 메들리를 함께 부르며 성탄의 분위기를 살렸다.

김재열 담임목사는 음악회에 대한 역사를 소개하며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축복하며 환영한다”라고 인사했다.

김 목사는 헨델의 메시아를 만들게 된 극적인 과정을 소개하며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를 부은 자’라는 뜻이며, 구세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헨델은 메시아를 작곡할 당시 심한 좌절감에 빠져 있었으며 경제적으로도 파산직전에 있어 작곡료나 받을 생각에서 가사들을 읽어 들었는데 가사 말씀을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24일 만에 대곡을 완성했다. 메시아가 내 손을 잡고 오선지 위에서 춤을 추었다고 고백했다”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또 “헨델이 살아있는 동안 32회 연주한 수익금은 험블고 굶주린 자들을 위해 모인 기금도 지원과 허리케인 등 극히 혼란스러운 아이티 의료진의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For Hope International Haiti’에게 전달된다”고 밝혔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 제2회 정기연주회

오후 5시 GOOD TV 렉처홀에서 열린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회장 이진아 목사, 단장 손옥아 권사) 2회 정기연주회는 단목 이만호 목사(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 사회로 진행됐다.

회장 이진아 목사는 “하나님께서 가라사하면 어디든지 가서 연주했다. 2021년 성탄절을 맞아 그동안 연습해왔던 실력을 수줍은 마음으로 보여드린다”며 “코로나로 힘들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쁨 마음으로 수습하며 찬양하면 질병과 문제가 사라진다. 우리가 머문 자리에서도 선교하는 것”이라고 인사했다.

크로마하프연주협회는 회원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후원금을 5개 지역(인도, 남아공, 도미니카, 케냐, 엘살바도르)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준성 목사(뉴욕교협 부회장)의 개회기도, 이진아 회장과 손옥아 단장의 인사말, 김희복 목사(뉴욕교협 회장)의 축사

후 연주가 시작됐다.

단원들은 이날 찬송가와 복음서가 6곡과 동요 명곡 5곡, 크리스마스 송 8곡 등을 연주했으며 마지막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울동시간을 가졌다.

또 유상열 목사(리빙스톤교회)의 색소폰 연주(죄짐말은 우리 구주)와 박태규 목사(뉴욕새침장로교회)의 하모니카 연주도 있었다.

이날 연주회는 김태욱 목사의 폐회기도, 임영건 목사의 식사기도로 마쳤다.

뉴욕크로마하프연주협회는 2006년 창단이후 뉴욕 뉴저지 교계 각종 행사에서 연주하며 선교활동을 펼쳐왔다. 단원은 현재 4기까지 총 33명이며 이날 연주회에는 23명이 공연했다.

협회 단원모집은 수시로 하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회장(718-406-7577)과 단장(917-922-5746)에게 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퀸즈장로교회 2021 “사랑의 바구니” 전달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연말마다 지역사회에 전달하는 ‘사랑의 과일바구니’ 행사가 지난 16일 진행됐다.

9.11사태로 슬픔에 싸인 지역사회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를 전하고자 시작된 이 행사는 21회를 맞아 올해도 지역을 위해 수고하는 경찰서와 소방서, 병원, 양로원, 어려운 불우이웃과 주민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했다.

올해는 총 117개를 제작했으며, 퀸즈장로교회 지붕아래에 있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 교직원들과 선교회 회

원들이 사랑의 바구니를 만들어 전달했다.

바구니에는 각종 계절 과일과 과자와 더불어 사랑의 메시지가 담긴 카드도 들어있다. “크리스마스”라 사라지고 “시즌 그리팅”과 “해피 홀리데이”가 판치는 이 세대 속에 카드에는 “메리 크리스마스”이라는 큰 글씨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한국어, 영어로 쓰여 있다.

(유원정 기자)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한인지방회 성탄축하모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두 번째 오실 예수그리스도” 기다려

미남침례회 뉴욕뉴저지한인지방회 성탄축하모임

미남침례회 뉴욕 뉴저지 한인지방회가 연합으로 개최한 2021 성탄축하 및 송년 모임이 12월 14일 오후 6시 에벤에셀 선교교회(담임 최창섭, 이재홍 목사)에서 열렸다.

뉴욕지방회 부회장 한필상 목사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지방회 산하 교회에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한다. 12월이 출지 않은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있기 때문이다. 성탄을 맞아 주님의 따뜻한 온기가 퍼져 얼어붙은 우리 마음을 녹이고 세상을 녹이는 은혜

가 충만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뉴욕지방회(회장 신은철 목사)가 주관한 1부 예배는 안승백 목사(뉴욕 서기) 인도 반주 이라는 사모(에벤에셀선교교회), 환영인사 한필상 목사, 기도 박현준 목사(뉴욕 회계), 설교 김화용 목사(뉴저지 회장), 봉헌특주 김재용 목사(뉴욕 증경회장), 광고, 헌금기도 및 축도 전병창 목사(뉴욕 증경회장) 순서로 진행됐다.

김화용 목사는 “두 번째 오실 예수 그리스도”(히9:26-28)라

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계절에 감사한다”며 “주님이 오신 이유는 1)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오셨으며 두 번째 오심은 1)자녀를 데리러 2)성도들의 구원완성을 위해 오실 것이다. 우리는 영혼구원에 최선을 다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만찬은 박근재 목사(뉴저지 총무)의 기도후 에벤에셀

선교회 성도들이 준비한 식사를 나눴다. 이어 3부는 한필상 목사 사회로 게임을 하며 준비한 선물들을 나눴다.

이날 헌금은 모두 2022년 청소년수련회 후원금으로 사용된다.

한편 신년기도회는 2022년 1월 4일(화)에 뉴저지 라마나웃 기도원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프라이스교회 스테반 청년부원 더나눔하우스 방문

12월 11일 오전 프라이스교회 스테반 청년부원들이 점심 식사 20여 인분과 함께 식료품을 더나눔하우스(대표 박성원 목사)에 전달했다. 청년부원들

은 뉴욕 한인사회 취약층인 한인노숙자들의 공동체 더나눔하우스를 방문해 위로와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기사제공: 더나눔하우스)

회장 심상은 목사, 이사장 신원규 목사

오렌지카운티교협 제30회 정기총회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상목 목사)는 제 30회 정기총회를 15일 오전 10시30분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웨딩채플에서 열었다.

이날 총회에서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를 31대 회장으로 신원규 목사(좋은마을교회)를 이사장으로 추대했다.

심상은 회장은 "OC교계를 섬길 수 있다는 마음으로 회장 자리에 서게 됐다"며 "교협이 건전하고 경건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성기



OC교협총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우측부터 원인은 교협 31대 심상은 회장과 30대 박상목 회장이 약속하는 장면이다. 또한 OC지역의 각 단체들과 연합해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했다. 부회장 조현영 목사의 인도로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00회 조찬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기독교문학 출판기념회 및 신인문학상 당선자 시상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400회 조찬기도회

오렌지카운티 기독교전도회 연합회(회장 민길) 400회 조찬 기도회가 16일 오전 8시30분 로스코요테 컨트리클럽 뱅킷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민길 회장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며 조찬기도회를 열게 된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며 "400회 조찬감사예배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세상이 아무리 커보여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힘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음을 감사드린다. 본연합회가 주님 앞에 계속 무릎으로 나아가는 연합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우경 이사장 사회로 열린 장학금 전달식은 소프라노 지경 집사가 축가를 불렀으며 민길 회장이 환영사, 윤우경 이사장이 감사의 말씀 및 연합회 연혁과 소개를 했다.

이어 민승기 목사(전 미기총 회장, KACC한미기독교연합회 회장), 박상목 목사(전 OC교협 회장), 샘신 목사(전 남가주목사

회장), 황치훈 장로(OC장로회 연합회 회장), 권석대 OC한인회장,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이 축사했으며 영길 연방하원의원, 미셸박스빌 연방하원의원, 샤론 퀴실바 주하원의원의 축사는 보좌관이 대독했다.

이어 선교사 자녀 장학금 전달식, 감사패 및 공로패 증정, 대통령 봉사상 전달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는 광재필 목사 폐회기도로 마쳤다.

한편 1부예배는 전홍 이사장 대표기도, 신용 수석부회장이 성경봉독(마1:21),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 설교했으며("가장귀한 이름 예수") 중보기도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는 윤우경 이사장이 미국과 한국의 회복을 위해, 신영세 이사가 열방선교와 선교사를 위하여, 엄재선 이사가 지역교회와 지역사회 및 전도회 연합회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인도했으며 한기홍 목사가 축도했다.

(박준호 기자)



갤러리 파도 14인 그룹전이 열렸다

다양한 문화공존 LA를 시각예술작품에 담아

갤러리 파도, 할러데이 축제 14인 그룹전 열어

갤러리 파도(관장 줄리엔 정)가 올해 한 해를 마무리하는 할러데이 축제 14인 그룹전을 11일부터 22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그룹전은 지난해 6월 개관을 시작으로 1년 6개월 동안 10개 전시회를 진행한 갤러리 파도는 개별적으로 진행된 작가들의 작품을 모으고 다채로운 작품 전시를 위해 새로운 작가를 영입해 연말 전시회를 기획했다.

줄리엔 정 관장은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LA를 시각예술 작품에 담았다"며 "LA에서 활동하는 작가부터 한국 전통을 담아낸 나전 칠기 작가까지 하나의 아티스트 커뮤니티로서 의미를 부여했다"라고 설명했다.

전시회는 메탈 조각 시리즈를 비롯해 초현실 팝아트 조각,

설치미술, 미디어 아트, 플라주 등 LA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아트 작품들이 전시됐다.

특히 캐더린 커트 그린의 섬세한 드로잉 작품과 독립 큐레이터로 협업한 올리 루아미미의 메탈 조각 시리즈, 한인사회에서 활동하는 양희관 작가의 풍경사진, 아넷 카폰의 거대한 스펀지 크래커 설치 작품, 슈가 맨 퍼포밍 아트로 알려진 크리스 와우리노프스키의 알루미늄과 레고로 탄생시킨 설치 조각 등 새로운 작품이 전시됐다.

이외에 잔 버니, 산 프리잔트, 재클린 프리잔트, 몰리 숄만, 임지훈, 자쉬 하셀카데, 크리스 와우리노프스키, 메리 라이, 콰수경, 문철호 등이 참여했다. (박준호 기자)

작품 통해 선한 영향력 끼친다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 출판기념회 및 신인문학상 시상식

미주한인기독교문인협회(회장 고영준 목사)는 기독교문학 22집 및 23집 출판기념회 및 신인문학상 시부문 당선자 시상식을 17일 오후 5시 용수산에서 가졌다. 이날 시상자는 에스더 한전도사, 한남옥 권사, 카라 영리 집사, 김중용 목사.

이날 고영준 회장은 "역사적으로 모든 이벤트들은 시로 말미암아 이뤄졌으며 그들의 작품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왔다"라고 말했다.

고 회장은 "언제부터인지 시인들의 정신이 나약해져있음을 느끼게 돼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라며 "시인들의 정신이 강해져야 하며 특별히 기독교인 회원들이 강해져 작품을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 한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1부 개회예배가 진행된 가운데 정정건 장로(재정이사)가 대표기도를, 민길 집사(부회장)가 성경봉독(막4:35-41)을 한 후 회장 박상목 목사가 '연약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중경회장 신원규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회장 박상목 목사의 사회로 2부 회무에 들어가 한기홍 목사가 환영인사를 하고, 최정자 목사(부회장)가 회원 점명을 한 후 회장이 개회를 선언하고 새 회장에 심상은 목사(갈보리산교회 담임)를 31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신원규 목사를 선출했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기사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 세미나

미주복음주의장로회총회(총회장 신원규 목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해석과 설교'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오는 1월 11일(화)과 12일(수) 양일간 갈보리새생명교회(담임 민승기 목사)에서 개최한다. 강사는 박성일 목사는 필라델피아 기쁨의교회 담임목사이며 박성일 목사는 다국적신학공동체 원장,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변증학 겸임교수,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Westminster Seminary in California, 한국 합동신학교에 객원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562)322-2919, (714)646-9259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와 국제제자훈련원이 공동주최하는 제27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주제로 2022년 4월 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열린다. 담임 목회자 및 칼세미나를 이미 수료한 담임목회자와 동역하는 부교역자, 선교사 및 기관 단체장을 대상으로 열게 되는 세미나 강사는 오정현 목사(서울사랑의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원장)와 노창수 목사(미주 국제제자훈련원 대표이사), 등록비는 조기등록(3월15일) 420달러, 일반등록 475달러다.

▲문의: (714)635-3000

LA사랑의교회 설립 15주년 감사 및 성탄축하예배

LA사랑의교회(담임 김기섭 목사) 설립 15주년 감사 및 성탄 축하예배가 25일(토) 오전 10시에 열린다.

▲문의: (213)386-2233



그레이스미션대 릴리 재단으로부터 2차 그랜트 승인을 받았다

3년간 4가지 프로젝트 시행

그레이스미션대 릴리재단에서 2차 그랜트 승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 박사)는 인디애나 폴리스에 위치한 릴리 재단으로부터 '내일을 향한 청경 이니셔티브' 프로젝트 2차 그랜트 승인받았다.

그랜트 규모는 100만 달러이며 그랜트를 사용해 21세기를 위한 신학교육을 제공하는 신학대학원이 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GMU는 지난 5월 릴리재단으로부터 5만 달러 1차 그랜트를 받은 바 있다.

최규남 총장은 "릴리 재단에서 발생된 수익금 중 연간 1%를 자선 기부를 하게 되는 데 연간 26000달러의 수익이 생기게 된다"라며 "그중 반을 미국내 ATS 소속 270여개 학교에게 전달했다. 1차로 5만 달러를 280개 학교에게 전달했으며 이번엔 시행된 2차 그랜트를 84개 학교가 100만 달러씩 전달받았는데 GMU가 그중 한 학교"라고 설명했다.

GMU는 3년간 4가지 프로젝트로 시행한다. 첫째는 포스트 팬데믹 사회가 요구하는 목회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 체계와 커리큘럼 개선 프로젝트다. 이를 위해 현대 트렌드에 맞는 교수총원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한 상설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다.

둘째, 다문화적으로 변화가는 시대에 잘 맞는 다문화/다인종 리더십을 갖춘 목회자 양성 프로젝트로 박사원 중심으로 시행하게 된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배경을 가진 자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미국의 선교 목회환경 속에 다문화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로 인종갈등 완화시키고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목회자를 양성하게 된다. 또한 로컬교회 목회자들을 위해 8주 코스로 연간 두차례 다문화 사역 활성화 위한 리더십 개발 프로젝트를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 국제포럼을 열게 되며 포럼을 통해 나온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셋째는 학생과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쉽게 온라인으로 접속할 수 있는 e-도서관 설립 프로젝트이다. e-도서관은 현재 GMU 도서관에 소장된 모든 도서들을 전자도서로 제작하게 된다. 현재 GMU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는 3만여권이며 그중 한국어로 된 도서는 25000여권이다.

넷째는 교회의 증가하는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IT & 미디어 기술 교육 프로젝트로 제임스 구 교수(총무처장)가 담당하게 된다. IT & 미디어 기술교육 프로젝트는 코비드19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환경의 변화가 일어난 만큼 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만들어가게 된다. 사역현장에서 필요한 IT 분야에 맞는 사역자를 양성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온라인예배와 사역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에 맞는 사역자를 배출하게 될 것이며 사역자 청빙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교회중심으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인턴십 프로그램은 사역자가 필요한 교회에 3달 정도 사역자를 파견하게 되며 사례비는 학교에서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이후는 해당교회와 협의하여 사례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은 △사역과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 △유튜브 비디오 편집기술교육 △교회홈페이지 관리, △주보, 줌미팅, 한글학교 교육 △소셜미디어와 네트워크 e-마케팅 등이다.

(박준호 기자)

프 등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농민들은 문화와 관계가 없어 안타까웠다. 그래서 귀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 위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수경 씨 사회로 열린 이날 콘서트는 랜디김 밴드, 소프라노 클라라 신, 테너 최원현, 수어통역 및 찬양사역자 김은정 씨가 출연해 정경고 따스한 시간을 가졌다. (박준호 기자)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취임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사진 우측부터 타원은 이날 취임식에서 선포하고 있는 박영선 시장

"커뮤니티 화합해가도록 최선"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취임식 시정에서

박영선 부에나팍 시장 취임식이 15일 오후 6시 부에나팍 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박영선 시장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의 지지와 지역주민에게 감사한다"라며 "스몰비즈니스를 위한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현재 비치 블러버드에서 시행중인 각종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마무리 되는 것, 그리고 부에나팍 시에 속한 여러 커뮤니티가 화합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한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고 미국에 살기에 타 커뮤니티와 화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에나팍은 한인들 유입이 늘어나는 곳이다. 인구는 8만여 명으로 아시아인은 24.8%를 차지하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문화예술 활동 소외 농민 연극기금마련

남가주농민협회 주최 나눔콘서트

남가주 농민협회(회장 홍성원 목사, 홍유희 사모) 주최 문화예술 활동에 소외된 농민을 위한 농민연극기금마련 크리스천 문화교류 및 복음을 위한 나눔콘서트가 16일 오후 7시 히스토리카페에서 열렸다.

홍성원 목사는 "남가주농민협회는 1세와 2세 농민 교육,



남가주 농민협회 주최 나눔콘서트에서 출연자와 스태프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DMV, 아파트, 전화, 영주권 및 시민권, 통역서비스, 푸드 스텝

한국교회 호감도 31.6점

한국리서치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설문 발표

상당수 한국인이 한국교회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개신교는 천주교나 불교보다 호감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절반가량은 개신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요 종교에 대한 호감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기관은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형태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설문은 지난달 26~29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이뤄졌다.

호감도 조사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한국리서치는 응답자들에게 특정 종교에 매우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0점을,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면 100점을 매기도록 했다. 조사 결과 개신교 호감도는 31.6점을 기록해 각각 50.7점, 50.4점을 받은 천주교, 불교보다 20점 가까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지점은 개신교에 부정적인 감정이 너무 강해 24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준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는 점이다. 전체 응답자의 30%가 개신교에 매긴 점수는 4점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런 수치는 원불교와 비슷하다. 원불교의 호감도 점수는 28.8점으로 집계됐으며, 응답자의 47%는 24점을 밑도는 점수를 매겼다.

종교가 없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을 때 개신교에 대한 반감은 더 강하게 드러났다. 무종교자 설문에서 개신교 호감도는 21.9점으로 원불교(29.8점)보다도 낮았다. 이들이 불교와 천주교에 매긴 호감도 점수는 각각 49.7점, 48.2점이었다.

그나마 한국교회에 반가운 소식은 개신교 호감도가 전년보다 소폭 상승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사에서 개신교가 받은 점수는 올해보다 3.6점 낮은 28.0점이었다.

개신교 호감도는 50대를 제

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약간 높아졌다. 개신교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세대는 60세 이상(39.2점)이었으며, 반감이 가장 강한 연령대는 30대(25.7점)였다. 본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호감도를 묻었을 때 개신교는 71.2점으로 천주교(75.0점) 불교(73.4점)와 큰 차이가 없었다.

한국리서치는 지난 8일 발표한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 활동' 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인 가운데 종교를 가진 비율은 50%일 것으로 추산했다. 그렇다면 종교는 한국인과 한국 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응답자 37%는 '종교가 내 삶에 영향을 준다'고 답했다. '한국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고 답한 응답자도 전체의 76%에 달했다.

종교의 긍정적 효과를 묻는 '종교의 효능감' 조사도 이뤄졌는데, 응답자의 77%는 '(종교가) 안정감을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감정을 갖거나 인간관계를 맺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도 각각 74%, 72%나 됐다.

정체성을 회복하고 무기력한 영성을 일깨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겠다. 이단을 배격하고, 정부의 악법과 독소조항을 고쳐가겠다'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이날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고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의 예배와 영성 회복, 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며 "평등법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정치적 시도에 맞서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 새 생명이 탄생했다. 박 목사는 "교회가 세속주의에 대항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대안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나타낼 때 많은 사람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김진우 청라은혜교회 목사는 전도 축제를 통한 성도 양육 방안을 제안했으며, 김성욱 총신대 교수는 전도를 위한 올바른 교회론 정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노재경 예장합동 교육전도국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는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한 몰락적 공세가 교회 전도의 주류였다면, 이제는 일상의 '생활 전도'로 정책을 전환해야 할 때"라며 "도와달라'고 부르는 세상 속으로 찾아가 살아가는 전도에 힘쓰자"고 말했다.

5060세대가 2030세대보다 높다

정재영 교수, 기독교 관련 온라인 콘텐츠 이용률 조사

50~60대가 코로나19가 확산된 이후 기독교 온라인 콘텐츠를 청년보다 더 많이 활용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50~60대 개신교인 10명 가운데 절반은 신앙생활의 이유로 '구원과 영생'을 꼽았으며, 3명 이상은 코로나 이후 자신의 신앙이 약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교회관에서 열린 '오파 세대의 신앙생활 탐구'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060세대의 신앙생활과 의식 조사'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세미나는 목회데이터연구소와 실천신대 21세기교회연구소, 한국교회탐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행사였다. 행사팀에 담긴 '오파 세대'는 '58년 개미'의 '58'을 의미하면서 경제력을 갖춘 신(新) 노년층을 가리키는 단어다.

설문은 지난 10월 20~25일 전국 50~69세 개신교인 7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50~60대 크리스천

종교활동, 정원 30%까지만 허용

미접종자 포함시...접종완료자만 참석뎌 70% 이내

코로나19 고강도 방역조치가 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종교활동 기준도 강화된다. 전원 백신 접종 완료자라는 전제 하에 수용 정원의 70%까지 정규 종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계와 논의 후 종교시설 방역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시행 기간은 여타 다중이용시설과 마찬가지로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예배 등 정규 종교활동을 진행할 때 앞선 두 가지 인원 제한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수용 정원의 70%까지 허용되는 첫 번째 방식으로 예배를 보려면 단 한 명의 미접종자도 끼어선 안 된다.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 진단서 또는 몸 상태 때문에 백신을 맞지 못했다는 소견서를 지참해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이들과 함께 방역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18세 이하 완치자도 예배에선 예외 없이 미접종자로 분류된다.

접종 미완료자들이 포함된 경우라면 허용 인원은 정원의 30%로 줄어든다. 이 때 총원은 최대 299명을 넘길 수 없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도) 예배를 볼 권리를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선택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다수 대형 종교시설이 접종 완료자수만 예배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97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병상 효율화를 위해 중증환자 한 명이 병상에 오래 머무를수록 병원에 지급하는 재정 보조를 줄이기로 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증상 발현으로부터 20일이 지나면 위중증환자의 입원 치료비 지원을 끊겠다고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기준을 먼저 적용한 미국·유럽의 중환자실은 대부분 1인실"이라며 다인실 중심의 국내 의료환경에선 원내 감염이 촉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종교시설 방역패스 적용 반대"

예자연 "종교자유 옥죄는 권한남용공무원 고발 검토"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가 정부의 백신패스 종교시설 도입 확대 검토에 대해 강력히 반대 의사를 밝혔다.

예자연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종교시설에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는 헌법에 보장된 종교 자유를 위반하는 권한남용일 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백신을 맞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지 말라고 하는 건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짓밟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개인 신체 특성으로 심각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의사 권유로 2차 접종을 무기한 연기한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을 차별하며 대우하라는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예자연은 백신패스는 중단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 이

류영모 목사 신임 대표회장 선임

한교총 20일 정기총회 속회...통합추진위 구성 밝혀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2일 정회됐던 제5회 정기총회를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속회했다.

한교총은 이날 신임 대표회장으로 류영모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장을 선임했다. 공동대표회장으로는 고명진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장, 강학근 예장개혁 총회장, 이상문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을 선임했다.

한교총은 이번 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해 이전 3인의 공동대표회장 체제에서 1인 대표회장 체제로 탈바꿈했다. 류 대표회장이 법인이사장을 겸하며 법적 대표권을 갖는다. 공동대표회장은 대표회장을 보좌한다.

이날 총회에는 32개 회원교단 총회대의원 280명 중 위임 포함 179명이 참석했다.

류 대표회장은 취임사에서 1

인 대표회장 체제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많음을 잘 알고 있다"며 한국교회의 하나 됨을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류 대표회장은 "세상에서 교회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비판은 극에 달하고 신뢰도는 절벽추락하고 있다"며 "바로 이때 한국교회가 힘을 가져야 한다고 하지만 아니냐. 위기의 시대일수록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가 심자가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한교총이 복음과 진리, 정의의 터 위에 굳건히 세워지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동반자로서 서로 존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또 기독교교육의 건학이념을 지켜나가며, 양성평등의 성격적 가정을 지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기후위기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나서고, 다음세대에 희망을 주며, 정의와 약자 편에 설 뜻도 전했다.

직전 대표회장 소강석 장종현 목사, 이철 감독은 각각 이임사했다.

이들은 나머지 5명의 회원교단 목회자들과 함께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른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과의 기관 통합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선 평화통일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했다. 특별위원회로는 기후환경위원회, 코로나19대응위원회, 정관계정위원회가 신설됐다.

총회 참석자 명의의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예배의 회복과 교계 연합기관 통합을 위해 헌신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건강가정기본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반성정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의 제정을 막겠다 뜻이 담겼다. 대선을 앞둔 한국사회가 좋은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고도 했다.

"교단간 화목·예배 회복 총력전"

한교연 정기총회...회장단 연임

한국교회연합(한교연·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서는 송태섭 대표회장을 비롯해 김학필 김효종 원종문 상임회장이 연임돼 현 지도부 체제로 내년 사역을 이어가게 됐다.

송 대표회장은 "올해 19개 교

단이 추가로 가입하는 등 든든한 성장을 이뤄가고 있다"며 "회원 교단 간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화목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다른 연합기관과 소통하며 통합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며 예수 사랑을 실천해 강한 연합의 '세 겹줄'이 되겠다"며 "교회 본연의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전도' 해야"

예장합동 정책포럼서 제안 쏟아져

앞으로 한국교회는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도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배광식 목사) 총회는 16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도정책포럼을 열고 급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전도 방식을 소개했다. '전도, 브랜드로 승부하라'를 주제로 강의한 강사들은 모두 "지역에 필요한 교회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모인다"고 말했다.

장윤재 청림교회 목사는 2013년 경기도 광주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작은 도서관을 열고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장 목사는 "전도지를 들고 지역을 돌아다니는 적이 있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람만 모으려고 하는 교회를 너무 잘 알아챈다"며 "이제는 순수하게 지역사회로 들어가 사람들이 '교회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단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목사는 카페나 방과후학

교 등은 오히려 주변 상가나 학원의 항의를 받을 수 있지만, 도서관은 공공성이 있고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사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3㎡(10평) 이상의 공간에 좌석이 6석 이상이면, 도서를 1000권 이상 갖췄다면 작은 도서관의 조건이 충족되기에 개척교회도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사역"이라며 "이제 한국교회는 주일 문화가 아니라 주중 문화로 변해야 한다. 도서관을 통해 교회가 사랑방이자 상담센터, 돌봄교실, 교육기관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윤성 익산 기쁨의교회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하는 이유는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교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세상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줘야 한다"고 전했다. 기쁨의교회는 지난해 미혼모시설인 '기쁨의 하우스'를 세워 미혼모들을 돌보고 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15명

된 기도는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낳아 그분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부추겼고 이 갈망은 영혼 사랑의 열정을 다시 피어나게 하여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로 향하게 했다.

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영의 사람들이 호흡해야 할 공기"와 흡사하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개인, 가정, 교회, 사회, 국가는 반드시 살아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위축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 모든 것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역사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날마다 호흡할 때 또 지나가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한 이 책 '간절한 매달림'은 팬데믹을 지나는 나에게 참 좋은 길잡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되었다.

독후감 공모 우수작..

(9면에서 계속)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간절하게 매달리는 것은 이 시대에 더없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된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일상의 삶이 단절되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부재에 있다. 영적으로 허기진 배를 다른 것으로 채우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에 배고파하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가 지불을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간절한 매달림'은 팬데믹을 지나며 서서히 빛이 바래가던 나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었다. 그 열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며 회개로 문을 여는 기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있었다. 회복



상 높았다. 이 밖에 기성세대가 출석 교회에 갖는 만족도 조사도 이뤄졌다. 응답자 12.9%는 출석 교회에 불만을 드러냈다. 불만족 이유(복수 응답)로는 '교인 간에 사랑이 없는 형식적인 관계'(33.0%), '시대의 흐름을 좇아가지 못하는 고리타분함'(31.3%),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불일치'(30.5%) 등이 꼽혔다.

선교의 창 (184)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메시아(Messiah)가 선포되는 성탄

2021 신축년(辛丑年)이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에도 우리 인간들은 우왕좌왕하면서 힘겹게 살아 왔다.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지 벌써 2년째이다. 이제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성탄의 계절이지만 별로 낭만이 없다. 설레임도 없다. 성탄트리를 보며 캐롤송을 들어도 느낌이 없다. 지쳐있는 심령들 위에 그 무엇인가 위로가 될까? 사람들은 COVID 19가 처음 시작될 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백신을 의지했다. 현대 바이러스가 인간을 조종이라도 하듯 델타, 오미크론 등으로 변이를 계속 일으키고 있다. 2021년 12월 20일자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275,894,595명이며 사망자는 5,379,160명이다.

에게 환히 비추시길 기원한다.

1. 메시아를 대망했던 이스라엘 백성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 유대민족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저들은 강대국 사이에 존재하면서 온갖 핍박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구와 중간기인 400년 동안은 영적 암흑기였다. 하늘의 계시나 목사가 끊긴 상태였기 때문이었다.

2.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이유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세례 요한의 선포가 대표적이다. 그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실 메시아라는 사실을 천명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해 못해 성취된 예언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관원들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형하고 말았다. 이 불법적인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했다. 이는 전율을 자아내게 한다. 나아가 부활의 증인들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완벽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시키셨음을 말하고 있다. 이 일이 허황된 사실이 아닌 것은 한 두 사람이 아닌 집단으로 부활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3. 걸작 "메시아"를 작곡한 헨델

헨델(George Frideric

작곡을 마쳤다고 한다. 이 걸작은 친구인 Charles Jenens가 성서를 바탕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대본을 썼다. 1부는 예언과 탄생, 2부는 수난과 속죄, 3부는 부활과 영생'으로 되어있다. 연주시간 2시간이 넘는 대곡을 이렇게 순식간에 작곡했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헨델은 이를 위해 거의 침식조차 잊은 채 작곡에 몰두했다고 한다. 초연은 1842년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이뤄졌다. 런던에서는 그보다 8년 뒤인 1850년이었다. 당시 국왕 조지 2세가 할렐루야 합창이 연주되는 순간에 발똥 얼어났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도 할렐루야 합창이 나올 때는 청중이 기립하는 전통이 남아 있다.

4. 성탄의 때 그리스도인의 생활자세

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주님이 돋는 해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놀리어 사는 것은 믿음이 없는 연고이다. 둘째, 자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도우란 말인가?" 이 세상에는 코가 녀자, 다섯 자인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교회가 담을 헐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셋째, 소망 없는 못 심령들에게 메시아를 전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 각자가 구세주와 연합됨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그분의 전함으로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

맺음 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잠14:13).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실존을 잘 묘사해주고 있다. 누가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질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 시대이다. 노아홍수 심판 이래 78억 온 인류가 이렇게 통째로 묶임을 당했던 때가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패역함을 보고 진노하신 것일까? 아무튼 지금은 말세라고들 말한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고(딤후 3:1-5)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경고의 메시지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인류도 맘몬니즘(Mammonism)과 인본주의와 첨단과학을 우상시 하는 풍조에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한다. 메시아의 탄생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며, 우리에게 소망 있는 미래를 주기 위해서이다. 입술로만 헨델의 메시아를 찬양하지 말고 삶으로 복음이 실체가 되어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인생들 중에는 유난히 밤이 길고 어두운 자들이 많다. 크리스천은 호흡을 하고 있는 한 결코 낙심할 필요가 없다. 교회는 메시아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널리 선포해야 한다.

과 고난, 가난과 노예생활을 감내하며 자손대대로 살아왔다.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얼마 전 이스라엘 민족은 마카비 형제가 이끄는 무장봉기를 통해 외세를 축출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했던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그 혁명은 오래가지 못했고 아픔으로 남았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소위 목시 종말론적 메시아인데 이 세상 끝 날에 메시아가 대군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와 모든 적군을 쳐부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파워풀한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한다. 사실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소망이 있으면 버틸 수 있다.

"메시아(Messiah)란 단어는 구원자를 의미하는(מָשִׁיחַ: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이다. 고대 헬라어는 (Μασιχας: 마시아스)로서 그리스도(Christos)를 지칭한다. 이 단어는 기름부다(to anoint)라는 어근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the anointed)라는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만 그의 메시아적 사명이 완성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사렛 예수가 어제나 오늘이나 인류에게 영원한 구세주이신 것은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기 때문이었다. 그분의 메시아 되심은 자체적 증거뿐만

Handel)은 독일 작센의 할레(Halle)에서 1685년에 태어났다. 그의 부친은 외과의사 겸 이발사였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 법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으나 곧장 음악으로 전향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이태리를 거쳐 대부분의 생을 영국에서 보냈다. 그는 1759년에 생을 마감한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그가 평생에 걸쳐 작곡했던 오라토리오에는 모두 32곡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의 곡을 중풍을 이겨낸 다음부터 작곡했다고 볼 수 있다. 그의 대표작은 오라토리오 "메시아"이다. 이 곡은 1841년 8월 22일부터 9월 14일까지 24일 만에

"구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는 분으로서(요9:5, 마4:16) 구약의 밤을 끝내고 신약의 낮을 가져 왔다. 복음은 빛을 동반한다. 빛의 속성은 대지를 밝게 하며 온기를 주고 살균작용을 한다. 이로써 생명체가 약동하게 된다. COVID 19로 인하여 현재 인류는 몸과 마음이 묶인 상태이다. 많은 이들이 사망의 그늘 가운데 앉아 있다. 누가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1:14) 이시다. 그러므로 금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 크리스천들이 해야 할 일은 3가지이다. 첫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빈 마음 가운데 평강의 왕 그



인문학으로 읽는 바울의 생애 19 베뢰아를 찾아서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데살로니가의 소동을 피하여 바울과 실라야는 밤에 베뢰아로 이동합니다. 베뢰아는 데살로니가로부터 약 73킬로(Km) 떨어진 도시로 해발 약 2천미터인 베르미온 산(Vermion)기슭에 자리 잡았던 도시입니다. 밤중에 출발한 바울일행은 로마시대 주요 간선도로인 에그나티아(Via Egnatia) 고속도로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 방문했던 도시들은 모두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선상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것은 마케도니아 에르게아스 왕조시절입니다. 에르게아스 왕조는 마케도니아 왕국 첫 왕조입니다. 에르게아스 왕조를 대표하는 인물은 빌립보를 세운 필립 2세와 그의 아들 알렉산더 3세(대제)입니다. 필립 2세는 마케도니아를 통합하였고 알렉산더 대제는 이집트와

베뢰아가 영향력 있는 도시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에그나티아 고속도로의 건설되고 로마 정부가 베뢰아를 활용하면서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베뢰아는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의 무대에 등장합니다. BC 2세기 중반부터 1세기에 베뢰아는 큰 변화를 겪습니다,

아는 농산물 장터로도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에그나티아 고속도로의 건설 덕분에 교역이 많아져 국제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당시 베뢰아에는 많은 외부인이 찾아와 정착하였고 상당수의 유대인도 거주했던 도시였습니다.

아 지역에 살았다고 합니다. BC 2세기 하반기에 마케도니아 로마 총독 나이우스 에그나티우스가 건설한 고속도로인 에그나티아는 당대 많은 도시들을 번창하게 만든 젖줄이었습니다. 에그나티아 도로는 로마가 제국을 통제하고 효과적인 전쟁 수행을 위해 만들었지만 가장 큰 혜택은 바울이 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에그나티아 고속도로를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피드나(Pydna) 전투(BC 168)에서 로마가 이기자 로마에 투항한 첫 번째 도시가 베뢰아입니다. BC 49-48년에는 시저(Caesar)에게 승리를 거두기 전 폼페이우스가 자신의 군대와 함께 지냈던 곳이 베뢰아입니다. 키케로가 데살로

이 베뢰아까지 와서 주민을 선동하여 소란스럽게 하자 바울은 혼자 배를 타고 아덴으로 이동했습니다(행17:10-15).

사도바울과 예루살렘 여행에 동행했던 소바더의 아버지 부로(행20:4)가 베뢰아의 첫 결신자로 알려집니다. 선교여행을 정리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아시아로 가는 길에 바울의 제자들이 동행합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바울의 제자들 가운데 부로의 아들 소바더가 동행합니다. 소바더의 동행이 베뢰아에 바울의 사역과 활발한 교회활동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소바더가 로마서 16장(21절)에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되는 소바시더와 동일인물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베뢰아 에그나티아 고속도로 통해 진행 바울 사역의 큰 결실 있던 베뢰아, 교회 유적 아직도 남아있어

인도까지 확대하여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시절 마케도니아 왕국은 통일된 주화를 발행했는데 그 주화를 베뢰아에서 발행했습니다. 이 시절에 베뢰아에서 아테네와 고린도처럼 체육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는 베뢰아 체육대회는 당시 그리스 각지에서 선수들이 출전했던 국가적인 행사였습니다.

조용한 농업 도시였던 베뢰아는 로마의 역사와 기독교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베뢰아는 원래 감, 배, 사과, 석류와 복숭아 등으로 유명한 농업도시였습니다. 할리아콘(Haliacmon)과 악시오(Axios), 두 강이 주는 풍부한 물과 비옥한 토질은 과일의 수확량도 품질이 탁월한 과수원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농산물 생산 덕분에 베뢰

그러나 데살로니가나 빌립보 같은 상업 도시로는 발전하지 못했고, 장석 세공업과 석공업의 중심지로 그 이름에 떨쳤습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베뢰아는 부유한 유대인들이 정착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당시 유대인들을 위한 2차 세계대전 전까지 그리스 전체에는 7만여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했는데 그 중에 6만명 정도가 데살로니가와 베뢰

니가에서 피신해서 베뢰아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베뢰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성경을 모범적으로 삼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 사람들은 바울의 전도를 받아들인 신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베뢰아는 사도바울의 사역에 큰 결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전도를 방해했던 유대인들

천주교 교회전통(교황령:Apostolic Constitution)에 의하면 바울이 감옥에서 만났던 '오네시모'가 베뢰아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독교 성인들을 기리는 정교회 달력(Calendar of Orthodox)에 의하면 바울의 걸음을 보관했던 '가보(딤후4:13)'가 베뢰아 교회 초대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여하간 바울의 선교로 베뢰아 지역에는 교회가 잘 세워졌던 같습니다. 그 후에 베뢰아 지역의 기독교 활동은 활발하였고 13세기와 14세기에 세워진 베뢰아 교회들 유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chap1207@hot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한 부자의 오해(눅18:18-22)찬410장

주께 영생 얻는 방법을 물은 한 부자는 왜 근심하며 돌아갔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18). 그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도덕선생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영생의 원천이신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서도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마11:27). 둘째, 예수 믿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9). 율법행위로는 불가능하고

복음이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에서 헤어날 수 없었습니다. 셋째, 헌신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23). 한 가지 부족함이란 예수께 헌신하는 믿음이 없었음을 증거합니다.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마음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할 때만 해결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영생을 받습니다(요3:16).

화 율법과 복음(눅18:18-23)찬343장

본문에서 주님은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대조시키십니까? 첫째, 율법은 복음으로 이끄는 교사 역할을 합니다(20-22). 간음, 살인, 도둑질 그리고 거짓증거를 금하라는 명령은 율법의 근본인 의, 인, 신의 기준을 보여줌으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달아 복음으로 나가게 합니다(마23:23, 롬8:224-25). 그때 바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복음의 목적은 오직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22). 그러므로 율법의 요구는 복음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행함과 믿음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셋째, 그러나 율법과 복음의 유기적 조화는 주님께 드러진 산재물로 삶으로 새사람의 열매, 곧,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는 일이어야 합니다(22).

수 물질주의의 위험성(눅18:23-27)찬214장

위의 사건을 통해 그리스도는 물질주의의 위험을 어떻게 지적하셨습니까?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대응품으로 만듭니다. 물질 자체는 선하나 물질주의가 되면 하나님처럼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물질 우상입니다. 둘째, 그것은 모든 삶의 노예로 살게 합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하

다고 주님이 지적하셨습니다(24-25). 그는 탐욕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셋째, 마침내 그것은 그리스도를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시면 삭개오처럼 회개와 믿음의 기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27). 구원받은 후 우리 옛 사람(육)은 그런 탐욕에 사로잡힐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목 누가 구원을 받을까?(눅18:28-30)찬498장

한 영혼의 구원받음에 주님의 관심이 있음을 보인 본문은 구원받는 길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은 이론적이고 충동적인 것 이상, 전인을 전적으로 주님께 던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신자는 성령으로 산재물 됨으로 구원이 시작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버리는 자여야 합니다. 자기의 죄인됨과 죽은 자임을 알고 회개함으로 완전히 돌아키

는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오직 주만 따르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게 합니다. 믿으니 회개하고 회개하면 믿어집니다. 베드로의 헌신 결단이 모든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는 현세와 내세의 보화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게 참 구원이 있는가 살피시다.

금 인자의 구속의 방법(눅18:31-34)찬202장

인자에 관해 기록한 구약예언의 핵심인 구속의 방법을 무엇이라 가르칩니까? 첫째, 그의 고난을 통해 이뤄집니다(32)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희롱당하고 능욕과 짐벌음의 극도의 수치를 당하심은 아답이 당한 수치를 대신하기 위함이었습니다(사53:5). 둘째, 그의 죽음으로 성취됩니다. 고난의 절정인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33). 자기 백성의 죄, 죄책, 형벌

을 짊어지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죽임이었고 우리의 온전한 나음이었습니다. 셋째, 그의 부활로 구속을 완료하셨습니다(33). 부활은 죽음의 효능을 증명했습니다. 죄사함 받은 우리는 새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능력까지 받게 되었습니다(롬6:3,6). 그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완전한 구속을 받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토 한 맹인의 믿음(눅18:35-43)찬340장

참 구원을 받은 한 소경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그는 예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었습니다(38-39). 다윗의 자손이란 메시아임을 믿은 증거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아는 기록론적 고백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성령은 그 일을 위해 우리 속에 씨를 심으시고 때가 돼 발아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에 대한 강렬한 소원을 가졌습니다(40-41). 소원을 마음에 두어 비전을 갖게 하시고 부르

짚게 하십니다. 소경은 자기의 근본문제인 눈뜨기를 소원했습니다. 셋째 그는 모든 것을 던지는 헌신의 믿음을 가졌습니다(39,43). 시험이 올 때도 주를 행한 그의 소원은 변치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완전한 구속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본입니다. 구속받은 참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교회음악 이야기(5)

사랑이 예 오셨네

윤임상 교수
(월미선대학교대학원)



19세기에 하와이에 있는 몰로리카섬에서 나환자들을 위해 선교사역을 했던 조셉 데미안(Joseph Demien, 1840-1889)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려가기 전에 뜨거운 물을 먹으려 컵에 붓다가 실수로 자신의 발에 쏟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다시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역시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씻으며 예배당에 들어갔고 그의 설교시간이 되어 그가 평소 애용했던 "나의 동료 신자 여러분"이란 말에서 말을 바꾸어 "나의 동료 나환자 여러분"이라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그는 그들을 동료라고 부를 수 있었고 드디어 그는 그들과 하나가 될 수 있기에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예수그리스도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며 우리가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조셉 데미안이 드디어 자신도 나환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되신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친히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구세주요 사랑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Gloria in excelsis Deo(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눅4:18-19).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성경을 읽으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사61:1-2)의 주인공이 바로 자신이라는 의미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함은 단순히 은혜 받은 자들의 마땅한 도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들이 기억하고 예배해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심판자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로 하여금 고대하고 소망하게 되는 중요한 고리(Anchor)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이 예 오셨네 하늘 영광 버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이 땅에 오셨고, 갈보리 언덕 위에서 죽음의 권세와 이기고 이 세상 다스리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 합니다" 라고 소리 높여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찬양 중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찬양은 "Gloria in excelsis Deo(높은 곳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 텍스트는 2세기 후반 초기

기독교 교회로부터 내려온 것으로서 초기 기독교인들의 찬양에서 가장 중요하게 불려졌던 가사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중세 기독교 미사에서 기본 골격을 이루는 미사 통상문(Ordinary Mass)인 Kyrie(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Gloria(영광), Credo(신앙고백), Sanctus, Benedictus(거룩, 축복), 그리고 Agnus Dei(하나님의 어린양)에 포함된 예배의 중요 요소로 변함없이 지금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통상문을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자들 중 루터가 제외한 다른 개혁자들은 그들의 예전에 거의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칼빈을 포함한 모든 개혁자들이 공히 예전에 포함시킨 것은 단 하나인 이 Gloria 텍스트였습니다. 이것을 통해 기독교 예배 찬양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을 상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 Gloria 텍스트의 성경적 기초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눅2:14)에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이전 내용을 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서 다윗의 동네에 너희가 고대하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 탄생하셨다(눅2:10-11)고 선포합니다. 이어 수많은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영광송을 드리는 것입니다(눅2:13-14). 천사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구속 사역의 최종 목적이란 사실을 그들의 영광 찬양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천사들이 그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고 찬양드리며 그 사건 안에 암시되어 있는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로 인하여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이 그리스도의 구속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모든 일 가운데 위대한 목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최종 목적이었음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 창조의 실제적 결과를 보여준 것이라고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할 것은 수많은 천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이 땅에 오신 그 분은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만왕의 왕이라고 외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전심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축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의 도리이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Soli Deo Gloria! iyoon@wmu.edu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한입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역 - 대형 피랑장 원내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워싱턴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본지가 보도한 2021년 10대 뉴스

[편집자] 코로나 바이러스 펜데믹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 2021년은 힘든 한해였다.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미주 한인교회도 전면 개방되지 못한 채 새해를 맞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만이 소망'이라는 굳은 믿음으로 2022년을 맞는다. 2021년 한 해 동안 본지가 보도한 미주한인 교계 10대 뉴스를 보도 순서로 게재한다.

1. 인종혐오범죄 중단 평화시위 (1821호, 11면)

아시아 증오 범죄 중단을 위한 평화시위가 LA 코리아 타운 올림픽에서 지난 3월 27일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시위 참가자들은 지난 애틀랜타 연쇄 총격사건으로 숨진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인 여성 6명의 죽음을 애도하고 "아시아의 증오를 멈추라(Stop Asian Hate)"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시위에는 제임스한 LA한인회장과 아태코커스 의장인 주디추 연방하원의원, LA10지구 시의원 마크 리들리 토머스, 존 리 12지구 시의원, 강석희 전 어바인 시장 등과 흑인과 라틴계 및 주류사회 단체 리더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들은 올림픽 가를 따라 행진하다 한국노인회관 앞 놀마니 교차점에 집결해 구호를 외쳤다. 이날 제임스한 LA한인회장은 "아시아계와 힘을 합쳐 인종 혐오범죄를 몰아내자"고 말하고 "증오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집회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2. 서부 3개 한인교회 담임목사 재파송불허 (1824호, 9면)

미연합감리교회(UMC)가 주 태평양연회(이하 Cal-Pac 연회) 하기가 감독은 연회의 진보적인 방향과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서부지역 대표적인 한인연합감리교회 3교회(남가주주님의교회, 벨리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의 담임목사에게 '감독이 연회를 이끌고 가는 방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21일 일방적 재파송불가 통보를 했다.



또한 최근 동부의 솔 감독은 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교회인 뉴저지 베다니교회의 이기성 담임목사에게 정직 120일 처분을 내리며 부당한 행정조치를 취해 많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교인들과 목회자들에게 혼란을 줬다.

2019년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교단 특별총회에서는 전통주의 장정을 유지하면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기존

의 "한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보는 입장을 고수하기로 했을 뿐 아니라 보다 강력하게 '인간의 성' 이슈에 대한 규제조항을 추가했다. 하지만 진보성향 감독과 미국내 다수연회, 교단지도자들은 UMC 장정에 대한 불복종을 선언하고 장정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안수와 파송을 지속해오고 있었다.

3. 뉴욕/뉴저지 9월 10-12일 복음화대회 개최 (1824호, 1면)

뉴욕과 뉴저지 기독교계의 가장 상징적인 복음화대회가 올해는 같은 시기에 개최됐다.



뉴욕 교협이 주최하는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는 지난 10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시작으로 11일과 12일 저녁집회를 가졌으며 뉴저지교협이 주최하는 호산나전도대회는 10일 저녁부터 사흘간 저녁 집회를 갖고 13일 오전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두 대회의 공통점은 또 하나, 대회강사들이 모두 파라과이 선교사 출신이라는 점이다. 뉴욕할렐루야대회 강사 양장근 선교사는 37년간 파라과이에서 현지인과 인디오 선교를 하고 있으며 호산나대회 강사 진유철 목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파송 파라과이 선교사로 17년간 사역한 바 있다. 이번 대회는 팬데믹 상황에서 모두 대면과 온라인으로 중계됐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했다.

4. "이기성 목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 (1825호, 10면)

뉴저지 베다니교회 이기성 목사의 UMC 목사직 포기와 관련 UMC 뉴저지 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연합회(회장 장학범 목사)가 5월 10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입장문은 UMC 뉴저지연회가 이기성 목사에게 내린 정직처분에 대해 이기성 목사가 목사직 포기를 밝히는데 따른 것이다.



UMC 뉴저지연회는 감리사를 통해 3월 15일 이기성 목사에게 다른 교회로 파송을 통보했다. 이기성 목사는 재고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베다

니교회 성도들 온라인 청원을 했으나 소용없었고, 베다니교회에 새로운 목사가 파송되고 이기성 목사는 휴직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4월 21일에 뉴저지연회는 이기성 목사에게 120일 정직을 통보했으며, 감리사는 25일에 베다니교회를 방문해 감독의 편지를 읽었다. 이기성 목사는 5월 3일 뉴저지연회 존 솔 감독과 김지나 도상원 한인감리사와 미팅을 갖고 오랜 논의 끝에 UMC 목사직 포기 결정을 내렸다.

같은 날 베다니교회 교인들은 교단 법정에 연회와 감독의 권력악용과 부당 파송 및 횡포에 대한 고발장을 발송했다.

5. 남가주연합기도회 국가기도의 날 (1825호, 11면)

2021 국가기도의 날 남가주 연합기도회가 5월 6일 오후 7시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는 유튜브와 협력방송사 중계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열렸는데 47,000여 기독교 단체가 참여했다.



미주성서화운동본부와 주님의영광교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도회는 평범 반대, 아시아인 인종혐오범죄 등과 같은 미국의 사회적 이슈를 놓고 함께 기도했으며, 미국의 신약회복과 한국과 미주한인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기도회는 4가지 주제를 인도자가 기도제목을 나눈 후 각 순서자가 소주제를 놓고 기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6. UMC 징벌적 파송조치 반대운동 (1826호, 9면)

미국연합감리교회(UMC)가 주태평양연회가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김낙인 목사), 벨리연합감리교회(담임 류재덕 목사),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담임 이성현 목사) 등 서부지역 한인연합감리교회에 내린 일방적 담임목사 재파송 불가 통보에 대해 남가주 한인교계 지도자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미주기독교총연합회(회장 민승기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공동대표 송정명 목사), 청교도신약회복운동본부(회장 한기홍 목사), JAMA(전 대표 강순영 목사), 평등법제지운동본부(실행위원 박세현 목사) 등 남가주 한인 교계 기관단체장들은 지난 5월 17일 오전 11시 JJ그랜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파송불가 통보'의 부당함에 맞서 UMC 한인교회총회(회장 이철구 목사 이하 한교총)와 연대해 대응할 것을 표명했다.

7. UMC 하기가감독, 한인목회자 3명에 통보철회 (1832호, 9면)

2021년 연합감리교가 주 태평양연회가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회복: 팬데믹의 비유들(Restoration: Parables of the Pandemic)'이란 주제로 개최됐다.



이번 연회에서는 이 연회 주재감독인 그랜트 하기가 감독이 동성애를 반대하며 교단 분리운동에 앞장서온 3명의 한인목회자(김낙인, 류재덕, 이성현 목사)에 대한 재파송 불가통보로 인해 한인교회는 물론 한인 교계까지 '징벌적' 결정을 철회하라며 성명과 항의시위를 벌여온 터라 연회를 통한 감독의 결정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가운데 하기가 감독은 김낙인 목사(남가주 주님의교회)와 류재덕 목사(벨리연합감리교회)는 교회 인사위원회를 통해 재파송 불가 통보를 철회하고 현 시무하고 있는 교회에 재파송을 하되 샌디에고연합감리교회 이성현 목사는 하와이 아이에야연합감리교회의 정상용 목사와 7월 1일부터 교차 파송이 결정됐다.

8. 여성영락교회 KPCA 교단탈퇴 결의 (1847호, 11면)

여성영락교회(담임 박은성 목사)가 소속된 해외한인장로회(KPCA)를 탈퇴하기로 결의했다.



지난 10월 10일 오후 3시 열린 공동의회에서 교단 탈퇴 건에 관해 총 894명의 투표자 가운데 찬성 780표, 반대 114표, 기권과 무효 11표로 87%의 찬성을 얻어 교단 탈퇴안이 통과됐다.

여성영락교회는 최근 일부 신도들이 담임목사와 시무장으로 노회고발 사태를 계기로 교단 탈퇴를 추진해왔었다. 일부 교인들이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발한 이유는 교회의 장학금 유용과 허위사실 유포 등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동의회가 열리는 날 KPCA

는 수습전문위원회가 사태를 수습하고 교단의 행정지시를 교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파견했지만 교회 진입을 막는 교인들 때문에 공동의회장에 들어가지 못했다. 교단의 대리 당회장으로 임명된 김인식 목사와 총회 사무총장, 시노회 임원 5명 등 총 7명이 현장에 파견됐으나 진입을 거부당했다.

9. LA시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 확정 (1854호, 11면)

LA시의회가 지난 12월 7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LA 시의회 선거구 재조정 최종안이 에릭 가세 티 시장이 7일 서명함으로써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인사회의 숙원인 한인타운 시의회 선거구 단일화 내용을 담은 이번 선거구 재조정안은 10일부터 발효됐다. 이번에 재조정된 선거구 지도는 향후 10년간 공식적인 효력을 갖는다.



LA 한인타운 선거구 단일화는 지난 10년 전에도 시도됐으나 정치적인 입김으로 결국 무산된 바 있다.

이번 단일화를 위해 한미연합회 포함 코리아타운 단체 리더들로 구성된 코리아타운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Koreatown Redistricting Task Force) 주도로 청원운동을 펼쳤다. 지난 8월 27일까지 10,000명 서명을 받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으며 모인 서명은 8월 28일 오전 10시 로스앤젤레스 시 10지구(CD 10) 공청회에 자료로 제출된 바 있다(1840호 11면).

10. 뉴욕교협 주최 미스바회개운동 개막 (1854호, 1855호 10면)

뉴욕 교협이 주최하는 미스바회개운동이 "오직 성령을!(행1:8)" 주제로 지난 12월 12일 저녁 5시 시작돼 15일까지 하루 네 번의 집회를 진행했다.



퀸즈한인교회(담임 김바나바 목사)에서 열린 첫날 집회에서 회장 김희복 목사는 "세상이 교회를 격정하는 시대가 됐다. 교협회장으로 사죄드린다"며 큰 절을 했다. 김 목사는 "참 목사가 되겠다. 교협과 교계, 교회를 사랑해 달라"며 뉴욕교계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회개기도를 드렸다.

최혁 목사(LA 주안예교회)는 12일 저녁 시작집회와 13일, 두 번째 강사 박성규 목사(LA 주님세운교회 담임)는 14일과 15일 하루 4회의 예배 총 13회의 예배가 진행됐다.

(취재부)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NYU 의대 웨일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증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웨일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 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담임목사 청빙

토랜스선한목자교회는 미국 Los Angeles 지역에 위치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소속 교회로서 2001년 6월에 설립한 이후 20년 동안 2세 교육과 복음전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온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2022년 정년으로 은퇴하시기에 2대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M.Div.) 이상의 학위 취득자
- 목사안수 받은 후 목회경력: 5년 이상(부목사 포함) / 이민목회 경험자
- 이중언어 (한국어와 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 목회 활동에 법적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 이력서
- 최근 설교 동영상 혹은 오디오 2편
- 자기 소개서 (목회소명/ 목회경험/ 신앙고백/ 성장배경/ 가족 소개와 가족 사진/ 신앙간증/ 목회 비전 및 계획)
- 추천인 3인의 추천서
- 목사 안수증
- 졸업 증명서 및 학위 증명서

제출 마감일: 2022년 3월 21일
제출처: rsong1010@gmail.com

기타:

- 서류는 email 로만 접수합니다(Word, PDF).
- 제출된 서류는 청빙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심사 후 안전하게 폐기됩니다.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 모든 문의는 email 로만 받습니다.
- 청빙 절차에 따라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합니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2531 W, 237 th St, Torrance, CA90505 | www.tgsc.org

TGSC.ORG
TORRANCE BIBLE BAPTIST CHURCH
토랜스 선한목자 교회



“나무는 자신을 위해
그늘을 만들지 않는다.”

초교파 복음주의 기독교대학 월드미션대학교에서는

2022년 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캠퍼스 트랙: 2022년 봄학기는 대면 수업 예정

- 준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 석사과정 : 상담심리학, 음악학, 글로벌리더십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온라인 트랙 : LMS 무플 기반의 100% 온라인 수업

- 준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 학사과정 : 기독교사역학, 기독교상담학, 사회복지학, 간호학(RN to BSN)
- 석사과정 : 목회학, 신학, 상담심리학, 음악학, 예배학, 글로벌리더십
- 박사과정 : 목회학, 교회음악학
- 수료과정 : 유아교육, 가정상담, 비영리단체 사역

월드미션대학교의 특징

- Moodle 기반의 블렌디드 수업
- 최고의 온라인교육 시스템
- 삼원화 교육을 위한 첨단 스마트 강의실
- 영성과 지성과 실천이 조화된 우수한 커리큘럼
- 그랜트(Pell & Cal) 및 다양한 장학금 제도

ATS, ABHE 정회원

www.wmu.edu | (213) 388-1000 | admissions@wmu.edu